同窓會 指標

•參與
•協力
•榮光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大學校 同窓會報

發行人 崔 主 鎬
編輯人 李 聖 秀
印刷人 韓 鍾 愚

發 行 所
서울大學校 同窓會
郵便番号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南 桃花洞 18-2
電話 : 702-2233～5, 717-8536～7

●銀行지로番号 : 7500875
●對替口座서울 : 010017-31-0621565

會員名簿 편찬작업 서둘러

15만同門 積極參與바라 : 來年에 刊行될 예정인 「會員名簿」에는 전 동문의 현주소와 직장이 기록되도록 동창회에서는 적극 홍보작전을 펼치고 있다. 榮光스런 隊列에 솔선해서 身上카드를 보내주길 편찬위원회에서는 바라고 있다. 〈사진〉 77년 간행된 명부와 單大동창회에서 간행한 회원명부.

冠岳春秋

내 이름이 여기에…

同窓會 창립 20주년을 맞아 常任理事會에서는 새해의 力點사업으로 「會員名簿발간」「10億基金造成」및 「同窓會內實化」등 세가지 사업을 議決하였다。여기서 가장 注目을 끄는 것은 會員名簿發刊事業이다。同窓會는 지난 77년 8만7천여명의 동문을 수록한 명부를 발간하였다。10여년이 지난 금년에는 15만에 육박하는 會員名簿를 작성하게 되었다。會員의 수가 그동안 6만3천이나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간되는 회원명부의 부피는 지난번 발간된 것의 거의 倍가 될것이다。지난번 발간된 명부도 상당히 부피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 발간되는 것도 한권으로 족할지가 매우 의심스럽다。아울러 엄청나게 큰 명부가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아무리 큰 명부라 할지라도 그속에 내이름이 빠져있다든가, 기재사항이 잘못되어 있다면 나에게는 아무 뜻이 없어진다。그랬을 경우 명부발간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명부발간과 같이 어려운 사업은 없을 것이다。이미 지나간 얘기이지만 77년도에 명부를 발간할 때에는 實務者들이 많은 고역을 치루었다。그 고역은 명부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과정의 어려움보다는 會員들의 參與度의 不足에 연유한 것이 더욱 컸다。작성된 원고를 정확하게 活字化한다는 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아무리 교정을 잘 보아도 誤字가 없을수는 없다。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정확한 人的事項의 把握이었다。지난해 봄부터 동창회에서는 컴퓨터시스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회원명부 간행체제를 갖추게 되어 業務의 能率化를 기하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그러나 아무리 컴퓨터시스템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入力하는 정보가 부실하면 모두가 허사로 돌아간다。

명부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확한 자료의 수집이다。그러나 명부작성을 위한 자료는 지금 모든 동문 개개인이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흩어져 있다。우선 活用할 수 있는 것은 大學校에 비치되어 있는 학적부이다。학적부가 비록 정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記錄의 內容은 회원명부용으로는 不足한 점이 많다。그것은 성명·생년월일·입학과 졸업년도 그리고 본적지 등을 수록하고 있을 뿐, 현재의 상황에 관해서는 기록을 하지않고 있다。듣건대 요즈음에는 이 학적부의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移記하고 있다고 하니 명부작성을 위한 작업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셈이다。학적부의 移記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문제는 현황의 파악에 있을 것이다。이 목적을 위해서는 單大別 또는 學科나 機關別로 作成된 명부의 活用이 매우 도움이 된다。그러나 이러한 명부의 이용에도 많은 제약이 있다。우선 회원명부가 없는 機關이 많고 또 있다 하더라도 不實하거나 너무 오래 되었다。

77년에 總同窓會의 名簿가 발간될때까지만해도 同門을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다。그렇기 때문에 同門들의 紐帶意識도 상대적으로 낮았고 해묵은 單大意識이 불식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그 당시와 비교해볼때 요즘의 同窓會意識은 엄청나게 커졌다고 볼수 있다。물론 여기에는 많은 要因이 작용하였지만, 同窓會名簿가 차지한 比重이 컸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런 의미에서 볼때 이번에 새로 出刊되는 名簿는 우리 同窓會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틀림없다。

同門들이 自己의 이름을 그 名簿에 올바로 새겨넣는 것은 큰 名譽이며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우리 同門이라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명예로운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다。이것은 앞으로도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이미 말한 바와 같이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는 일은 同窓會의 事業이기는 하나 會員은 모두가 그 過程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사항이 옳게 記載되는가를 살펴보는 정성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의 名簿는 부피만 큰 것이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그전의 것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지도적 인사로 채워질 것 같다。우리는 그속에서 母校가 그동안 배출해낸 많은 지명인사를 보게될 것이다。우리는 이번에 발간되는 名簿를 통해서 母校가 名實相符한 세계적 대학으로 成長하였다는 사실도 알게될 것이다。이번 名簿에는 1백여명의 外國人同門도 수록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이제 우리의 이름은 더욱 값진 것이 되었다。이번 名簿에 자기 이름이 꼭 담기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行方不明者가 되시렵니까?

——所在를 속히 알려 주십시오

名簿發刊 1단계작업

卒業者명단 複寫 완료

3월부터 컴퓨터入力 본격着手

會員名簿 발간의 기초자료가 될 졸업자 명단이 지난달말 완료의 복사가 본격 입력됐다。

본회에서는 지난 1월 4일 시무와 함께 복사기 1대를 임대하여 학적과에 설치하고 직원 4명을 고정 파견, 모교측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명부복사에 착수하여 이날 1단계 작업을 완료한것이다。

졸업생 명단이 확보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컴퓨터에 본격 입력시킬 방침이다。 명부발간 계획에 따르면 늦어도 이달말까지 학적부에 의한 동문의 姓名、本籍、出身大學 및 學科、卒業年度의 컴퓨터 입력을 마치고 3월부터는 동문들의 職場 및 職位、勤務處주소(電話)、自宅주소(電話) 등을 파악하여 삼반기중 명부발간에 회원들의 所在확인작업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모든 동문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아래 광고난의 「同窓會員카드」를 작성하여 동창회 사무처(명부편찬실)로 보내주어야 명부발간에 차질이 생기지않는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가정대동창회 정기총회 모습

새해벽두 同門熱氣뜨겁다

賀禮會 定期總會등 잇따라열려

◇…家政大學동창회(회장 洪性也)는 지난 1월20일 정오, 호텔리베라 3층 백제홀에서 제34차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洪性也회장은 『1백30여명의 새회원을 맞이하는 환영의 자리를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동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전개 및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확충에 힘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온강총무가 동창회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를 하였고 장학금수여, 신입회원 소개후 식사와 여흥을 즐기며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工大機械工學科동창회(회장 金善弘)는 지난 1월12일 오후 6시30분 인터콘티넨탈호텔 2층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1백50여명의 동문이 참석, 성황을 이룬 가운데 있은 신년하례회에서 金善弘회장은 동창회의 새해사업과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어 동문상호간의 인사, 저녁식사 순으로 진행되며 새해의 힘찬 전진을 다짐하고 폐회했다。

◇…文理85회(52년 文理大 입학동기 모임)는 지난 1월17일 오후6시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손돈규회장을 비롯,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하례회에서는 특히 金洛中동문의 「새해의 南北關係의 개선방향」과 金相昊동문의 「2천년대의 기술은 인류를 어떻게 변화시킬것인가?」 그리고 金彩潤동문의 「한국사회의 不平等문제」에 대한 특강이 있어서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法大同窓會(회장 金性洙)는 지난 1월20일오후 6시 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신년교례회를개최했다。

동문 약 2백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하례회에서 金性洙회장은 지난해의 사업을 보고하면서 장학금 모금사업이 만족하진 못했으나 많은 동문이 호응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금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대학장을 대리한 崔松和학장보의 모교근황보고가 있었고 뒤이어 각종 훈포장 및 동창회 유공자에 대한 축하패·기념패·장학패 증정이 있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선후배가 덕담을나누며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날 패를 받은 동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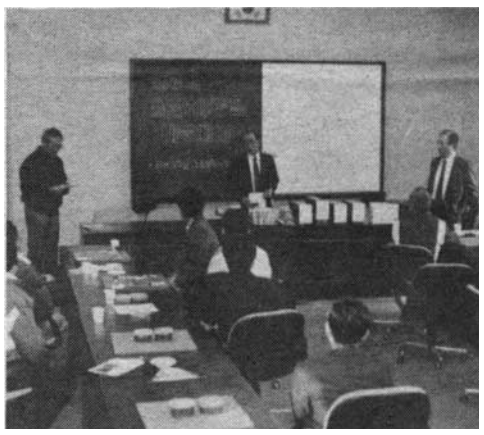
▲축하패 △金鎭佑(헌법재판소 재판관) △李時潤(〃) △崔光律(〃) △金文熙(〃) △鄭宗澤(정무제1장관) △李漢東(내무장관) △韓元道(중앙선관위 상임위원) △崔秉烈(문공부장관) △文仁龜(대한변협회장) △李世中(서울지방변호사회장)

▲기념패 △洪性裕(서울시문화상) △金庸來(올림픽훈장) △金鍾喆(홍조근정훈장) △朴一龍(〃) △兪憲相(철탑산업훈장) △李龍(제30회사시수석합격)

▲장학패 △柳宅馨(특별장학기금 출연) △李奭熙(〃) △李徵永(〃)

◇…醫大同窓會(회장 裵信浩)는 지난 1월22일 제6회 회장배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 모교 病院研究所 수술실에서 35연대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2명이 1조를 이루어 대국을 벌여 결과, 최훈동·홍택유 결과, 최훈동·홍택유 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의대동창회 친선바둑대회 광경

親善 바둑대회 개최

醫大

우승 최훈동·홍택유동문組

醫大同窓會(회장 裵信浩)는 지난 1월22일 제6회 회장배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했다。

대국이 끝난 후에는 우승팀과 프로棋士 高在熙 6단과의 指導對局이 이어졌으며 즉석 칵테일파티를 벌이며 담소를 나누는등 시종 즐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우승:최훈동·홍택유동문 ▲준우승:이재홍·이주호동문 ▲3위:김성수·김진호동문 ▲장려상:김면호·김계태동문

駱山奬學會에 또 5천만원

金性洙법대동창회장

金性洙법대동창회장은 지난 1월16일 법대동창회의 장학법인인 낙산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또 출연했다。

金회장은 지난 81년5백만원을 첫 출연한 이후 이번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총 2억6천5백만원을 출연했다。

이로써 낙산장학회의장학기금은 4억여원으로늘어나 보다 많은 후배들에게 장학의 혜택을 주게됐다。

南加州

美洲韓人文化발전에 앞장

音樂會개최·基金마련 奬學會 설립 推進

本會 南加州지부(회장 박상길)에서는 지난해장학금 모금을 위한 제1회「서울대학교 동창회음악회」를 개최하여 상당액의 基金을 마련하고奬學法人 설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駐나성총영사관과 中央日報 후원으로 개최된이번 음악회는 많은 同門과 가족, 그리고 교민등 음악애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는 것。

특히 음악회 출연진은 전원이 모교 音大 출신으로서 南·北加州에 거주하고 있는 동문들로구성되었다。 그중에는 南加州지부의 음대동창회장인 김옥자동문을 비롯하여테너 이우근동문등 한국이 낳은 정상의 음악인들이 대거 출연하여 수준높은 음악회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박상길 회장

음악회를 주최한 南加州지부 박상길회장은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우리 지부의 장학회가 설립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뜻깊은 일로 여겨진다』면서 『힘차게 탄생하는이 장학회가 앞으로 성장발전하여 LA에 거주하는 우리 자녀는 물론 조국의 育英사업에도 많은도움이 될수 있는 큰 재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駐나성총영사 김기수동문은 『자랑스러운 우리동문들이 美洲 한인사회의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뜻을 합친이 음악회는 向學의 학도를 위한 장학금 마련뿐 아니라 美洲 한인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값진 기회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 음악회를 계속 발전시켜나가 미주 한인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과 광고등 주변의 많은 협조로 재정면에서도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려 장학회 설립에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등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大學院 〈上〉

서울大學校의 뿌리 ⑧

—韓基彦

〈49년 師大卒·母校師大교수〉

대학원은 국립서울대학교 창설과 함께 그 역사가시작되었다.

역대 대학원장으로는 초대 尹日善원장 이래로 李丙燾, 沈相奭(직무대리), 李丙燾, 金東益, 檀寧大, 朴鍾鴻, 李寅基, 權彝赫, 金桂淑, 閔丙台, 申東燾, 李榮寧, 韓沽劤, 李萬甲, 金鍾云, 金曾漢, 金元龍, 金榮國, 張世熏 박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한국의 학문적 메카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학이고 보면 자연 대학원및 대학원장직은 우리나라 학계의 상징적 존재일 것임에 틀림없다. 사실 그동안 역대 원장을보면 한 시기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학자요 교수가 원장직에 취임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초대원장이었던 尹日善박사의 학문적 상징성은지극한 것이 있었다고 하겠다.

尹日善박사(1896~1987)는 과묵한 가운데서도 몸으로 학문정신을 여실히 보인 분이셨다. 세상을 떠나시기 거의 직전까지도 학계에의 활동과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90을 넘기신 老軀이셨을때도 공적 행사에 빠짐없이 참가하시는 모습 가운데 왕년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초대 원장으로서의 學問精神의 氣概가 표출, 연소되고 있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물론 윤박사의 경우는 대학원장직만이 아니라, 부총장을 거쳐 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신 분이다. 뿐만아니라 지금까지처음이요 유일한 일로 기록되고 있는 교수들(조교수급 이상)의 직접선거에의하여 선출된 총장이기도하다. 그만큼 그의 학문적이미지는 확고하였고 따라서 교수선출형식이 채택되자만장 일치가 되다시피하여 자연스럽게 총장직에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이다.

▶尹日善 初代大學院長

尹박사는 전공인 病理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취미면에서는 미술감상이 돋보였다. 크고 작은 미술전람회에서 윤박사를 뵙게될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의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자주 미술전람회에 발을 옮기곤 하셨던 것이다.

나 역시 49년 사대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교육학과 최초의 입학생이고 보니 尹日善박사 대학원장 재임시의 학생이었음은 물론이다.

그의 제자인 醫大의 李尙國교수(53년卒)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그중몇 대목을 뽑아 보기로한다.

| 大學院 강의는 腫瘍學, 新陳代謝障碍, 內分泌系, 病理學 및 肝病理學등을 담당하셨는데 강의는 선생님의 방인 교수실에서 하셨으며 학생이 단 한명 뿐일 때도 缺講하시지 않으셨다.

—선생님께서 발표하신논문은 自著50편, 지도논문2백60편이며 그중 박사학위지도논문은 90여편에 이른다.

—선생님께서는 八~九旬의 고령에 보행이 불편하셔서 부축을 받으시면서도 국내 주요 學術大會에 참여하시고 수년전까지만 해도 매주 1~2회 病理學교실에 들르셔서 최근 學術誌를 보시며 교실내 연구진행상황등에 관심을보이셔서 후학들의 模本이되셨다.

—선생님께서는 다소의재능보다는 사람됨을 중요시하시고 인격이 결핍된자는 학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셨다. 필자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격과 인간성 요건의 하나로 중요시해왔음은 어언간 이러한 선생님의 가르치심에 연유한것이 아닌가 싶다.

또 이러한 말도 보인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선생님의 外國語學力도 대단하시다. 英·獨·日語外에 佛語에도 能通하시다. 서울大 總長 재임시영어 使用圈外의 某 外國대사가 서울大 병원을 방문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難處하였음때 선생님께서는 總長 신분이심에도 불구하시고 自進 通譯官으로 活躍하셔 苦境을 免하게 하신 것은 醫大캠퍼스에 남아있는 재미있는 일화의 하나이다.

이렇게 제자의 회상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초대 대학원장인 윤일선박사의 면모는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酵母요 학문정신의 顯現體이기도하였던 것이다.

九旬을 여러 해 전에넘기신 역대 대학원장 중의 한 분은 斗溪 李丙燾박사이시다. 「斗溪史學」이라는말이 자연스럽게 쓰여지듯이 그의 학문적 업적은 혁혁하며 오늘날 大家를 이룬 한국의 중진급 학자 교수들이 그의 문하생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李丙燾 前大學院長

斗溪는 가족적으로도 많은 학자·교수를 배출하여 일찌기 「博士家族」이라 널리 천하에 알려진 바 있다. 李基寧박사(醫大·명예교수) 李春寧박사(農大·명예교수) 李泰寧박사(師大교수)는 모두 서울대학교 교수였었고 현재도 인연을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子婦(牟壽美·가정대)역시 본교 교수이고 보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학문 세계에 있어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가히 학계의 귀감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斗溪는 대한민국 學術院 회장으로서도 최장수를 누렸다. 이와 아울러 수많은 학술상을 수상하였음은 물론이다.

▶朴鍾鴻 前大學院長

최근 보도에 의하면 崔泰永 전 서울대 법대학장과 共著로 「한국상고사입문」이 곧 출간된다는 소식이다. 단군이 실존하였음을밝히는 내용의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斗溪의 학문세계는 靈檀學會 창설 이래로 끊길 줄 모르는 학적 정열의 연속임을 후학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 그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大學校 文學博士 학위 취득자임(1952년)도 그 學史的 意義가 매우 크다 하겠다.

다음은 洌巖 朴鍾鴻박사(1903~1976)에 관해서이다.

그가 대학원장 시절에 제자로서 또한 대학원 조교로서 가까이 모시고 있었던 철학과 蘇光熙교수득公私의 區別이 峻嚴한 大學院長」이었다고 하면서 당시의 그를 이모 저모로 묘사하고 있다.

즉 —외국에 나갈 형편은 못되는지라, 박사 과정에라도 진학하고 싶어졌다. 이것이 박선생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최초의 기회가 되었다. 한때 예산부족으로 정간 상태에 있던 논문집 간행을 계속하게되었고, 나는 그 일을 전담하는 대학원 조교로 임명되었다. 그 뒤 6, 7년동안 나는 박선생님을 조석으로 대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박선생님의 사고나화술까지 직접 접할 수있음이만큼 익숙하게 되었다.

이렇게 洌巖과의 인연을 말하는 그는 —직장 생활 취임시 피력한 소감을 보면 이러한 대목이 보인다.

즉, 大學院은 現狀의 小한 部分的 改革이 문제라기 보다는 此際에 大學敎育의 理念을 다시 闡明하여 大學院에 대한 일반의 認識부터 새롭게 함으로써 根本的인 政策을 確立하여야 할 시기에 당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大學院中心의 大學校를 적어도 하나쯤은 가지게 되어야 眞正한 의미에 있어서 學術의 심오한 硏究가 가능하게 되고 지도적인 인물도 제대로 양성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대학교육의 목적을 본래의 의도에 있어서 관철 달성하려면 서울大學校 大學院이나마 大學院다운 大學院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요, 이 대학원에 이 나라 最高水準의 眞摯한 學者들이 모여들어 硏究와 指導에 몰두할 수 있어서 學問零圈氣가 왕성해질 때 비로소 韓國文化의 向上發展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大學新聞』383호, 1962·2·5)고 포부를 피력했던 것이다.

그러기에 얼마후 「大學院正常化에 曙光?」이라는 기사가 대학신문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5·21)

그것은 서울大學校大學院再建委員會가 마련한 「大學院 正常的 운영에 關한 建議」로서 최고회의 등에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중 「專任敎員의 配置」에 관한 것을 보면 1전공당 교수·부교수·조교수 각 1명씩 261명 배치, 人文系 1 전공당 1명의 조교, 自然 1 전공당 2명의 技員을 배치한다. 단 이는 적격자의 선정및 급격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3年次計劃으로 매년 3分의 1씩 增置한다 등으로 서기관의 개편, 시설의확보, 연구비의 지급등 매우 의욕적인 계획안이 보였던 것이다.

역대 대학원장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대학원 정상화에 힘쓴 흔적이 역력한 洌巖은 학자요 교육자로서 退溪에 버금가는 일을 해낸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것은 『스승의 길—朴鍾鴻博士를 回想한다』(一志社, 1977)는 추모의 글들을 읽어볼 때 더욱 그러한확신을 갖게 한다.

學問的메카로 母校창설과 同時 발족

—專任교수 배치, 硏究분위기 돋구어야

歷代院長은 學界의 상징이며 碩學들

선생님은 유난히 엄격했다. 대학에서 대학원장이란 직책은 그렇게 바쁜 자리가 아니었다. 예산도 별로 없고 청사도 따로 없었을 뿐더러 전임교수도 없는 터라 학위 발행의 사무, 입학 관계의일, 기타 몇 안되는 사무원이 보는 사무 결재가 고작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달론하고 학문 연구하는 것이 소관사의 전부이었다고 당시 대학원장 생활의 단면을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洌巖이 대학원장

藥大21회同期會

卒業20돐맞아 母校에 5백만원 支援

夫婦동반으로 恩師찾아 기념품 전달

藥學을 전공하고 藥界에서 일하는 專門人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藥大21회 同期會는 지난 63년에 入學하여 67년에 卒業한 동기들의 모임이다.

入學당시에는 69명이 입학하였으나 늦게 졸업한 동문도 있고 먼저 입학은 했지만 졸업하지 못한 동문도 있어 人數는 19명의 女同期를포함, 53명의 同期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國外에서는 美國支部(支部長 金泰鎬)에 24명의 同期들과 홍콩·아르헨티나·오스트리아에 각 1명씩의 동기들이 나가 활동하고 있다.

◇曺基先 회장

21회 同期會員들은 사회 각분야에서 중추적역할을 하고 있어 藥局경영이나 藥學界와 藥業界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女同期들도 藥局을 경영하는 등 전공분야에 대한 사회적 활약상이 두드러지며 夫君들도 政界와 事業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저명한 분들이 많다.

그러나 이제까지 21회 同期會의 활동이 뜸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소수동문들의 친목단체로 그 명목을유지해 오던 것이 지난 87년 卒業20周年 기념 진치인「成年잔치」를열면서 活氣를 되찾게된 것이다.

그후 國內外 80여동문이 단단히 뭉쳐 동료간에 親睦을 돈독히 하기 위해 喪慶事 참여는 물론 각종 모임을 열어, 友誼를 다져가고 있다.

특히 지난 87년 母校교수회관에서 열렸던 졸업20주년 기념「成年의 날」행사는 이들모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學窓시절을 회상하고 紀念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42명의 同期들이 夫婦同伴으로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는데 이들은 오늘이 있기까지 가르쳐 주신 敎授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한편 紀念事業으로 母校發展基金 2백50만원과 圖書購入費 2백만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또옛 恩師인 敎授님들께는후 집한 紀念品을 증정하며 同期生들의 성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成年의 날」행사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다 同期會의 회장으로 先導的역할을 하고있는 曺基先(한양약국) 회장은 『저희 21회 동기들이 입학할 당시는 5·16 혁명후의 혼란한 사회분위기때문에 면화에만 열중할수 없었읍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커서 대부분이 가정교사등을 해가며 어렵게 공부했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토록 고생했던 동기들이 어엿한 사회的으로 자기 活動領域을 넓혀가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또한 21회 同期會에서는 올해의 事業계획으로 母校가 장기발전계획으로 추진중인 藥學敎育硏修院의 新設計劃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21회 동기뿐만 아니라 전 약대동문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달부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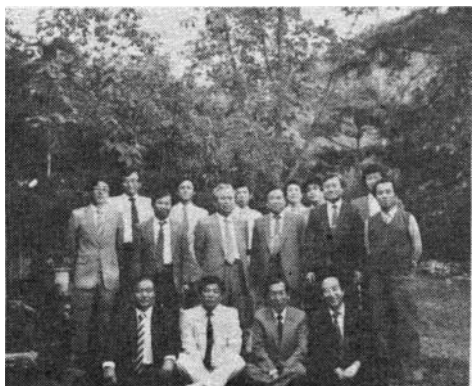
이밖에 21회 同期會에서는 올해부터 同期會報를 격월간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회원수첩배부와 동기회의 휘장을 제작하여 각종모임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21회同窓會員들은 藥界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藥業界에는 金秀雄(한미약품理事), 金淸浩(태준제약專務), 薛省和(일동제약理事·現 副會長), 李光洙(신광신약(주) 대표理事), 張安秀(동아제약理事), 李宗址(아마노찌 제약회사 서울사무소 소장·前會長), 金尙熙(세브란스병원약국·現總務) 동문등이 활약하고 있으며 學界에는 金京禮교수(成大 藥大), 姜健一교수(淑大 藥大), 趙炳泰교수(한림대 화학과) 등이 있다.

이밖에 현재 女副會長직을 맡고 있는 任玉子(현藥局) 동문등다수가 藥局을 경영하고 있다.

서울大 出身으로서 矜持와 自負心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藥大21회 同期會.

이들은 母校를 떠나서는 자신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앞으로 보다폭넓은 활동을 통해 母校와 同窓會에 기여하겠다며 포부를 밝힌다.



◇지난해 10월 理事會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農大農生物學科

西中里 常綠의 아들·딸로써 4개星霜 한울타리 속에서 靑雲의 꿈을 키웠던 同窓들이 이제 어엿한 사회의指導的 役軍이 되어 再會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場이 있다.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生物學科 同窓會』.

지난 65년에 발족된 이래 農生物學科 同窓會는 선배와 후배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 마련을 꾸준히해 오고 있다.

農生物學科의 설립은 1946년 國立서울大學校令이 공포되면서기존의 農·林·畜産·農工·農化學 5個學科에 農經濟學科와 함께 신설되었다.

그러나 農生物學科가 생긴 첫해에는 入學生이 없었고 이듬해에 故 姜壽遠동문이 최초로입학하였으나 52년까지는 入學生의 總人員이 10명 이하여서 학생수로 보아 零細學科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農生物學科人들은 學究欲이나 모든 면에서 패기 만만하였으며 農生物學同好會를 조직, 動植物採集이나 새로운 硏究課題 및 實驗法에 대한 소개와 討論이 활발하였다고 한다.

農生物學科 동창회의 創立은 母校에 봉직하는 몇분들의 발의에의해 이루어 졌다. 이에 初代會長에는 農生物學科의 사실상 첫 入學生이었던 故 姜壽遠동문(47년 入學)이 맡아 초창기의 어려움으로 東奔西走하였고 2내 會長에는 現 農生物學科長으로 在任중인 鄭厚燮동문(49년 入學·學術院 會員)이 맡아 쓰고 있다.

이러한 회원들의 노력으로 農大의 막내동이 學科인 農生物學科 동창회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하여 겨우 1백명 미만이던 것이이제는 1천여명이란 큰 가족으로 성장하여 가장 활발한 동창회의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다.

한편 同會에서는 會의 活性化를 위한 方案으로 매년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있으며 他 科同窓會에 뒤지지 않는 同窓會 基金을 조성하기 위해 졸업 10주년 이상되는 동문들에게 終身會費制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69년 8월 창간된 農生物學科의會誌인「뉴-스레타」는同窓間의 消息을 전하는 메신저로 그 역할을充實히 이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同會는 創立 23년이라는 成年期에 걸맞은 다양한 事業을 전개하고 있으며 同會 회원들의 사회활약상도 뛰어나 學界및 硏究所, 일반 기업체에서 자질의 우수성을인정받고 있다.

특히 學界에는 母校의 鄭厚燮, 羅培俊, 沈載昱, 崔承允, 趙鏞涉, 禹建錫, 林雄圭, 夫康生, 李仁遠, 朴恩雨교수를비롯, 충남대의 安壽奉교수, 경희대의 權臣漢교수, 건국대의 任文淳교수, 전남대의 李升燦교수, 兪炳世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학무국장등이있다. 그외 宋基龍(상록사 社長), 尹汝昌(창영원복장·前 同窓會長), 元昌南(한국삼공(주) 專務), 洪庠基((주) 경농 理事·現 副會長), 姜銓愉(나무종합병원장), 朴滿淳(동양화학 (주) 理事) 동문등이 사회의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同會의 副會長인 鄭厚燮동문은 『이제까지 農生物學科 同窓會의 활동이 미약했던 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同窓들간의 相扶相助 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健在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라며 앞으로의 靑寫眞을 펼쳐 보인다.

식물의 病虫害에 대한 연구및 대책마련으로 「식물의 醫師」임을 자처하는 農生物人. 이들은 同窓會 활동을통해 동문 상호간의 親睦도모 뿐아니라 母校발전을 위해서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基金조성위해 終身會費制 채택

會誌 발간하며 活性化에도 적극

잊을 수 없는 스승

民法學의 先驅者

═ 晴軒 金曾漢선생님

──글·崔 鍾 庫
(70년 法大卒·法大교수)

晴軒 金曾漢선생님께서 지난 10월 7일 他界하시고 3개월이 지났다. 訃音을 들으며 「韓國法學界의 巨星이 떨어졌구나」하는 생각이들더니, 그후 돌이켜볼수록 스승의 偉大함과 그 不在의 空虛를 절감하게 된다.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는 筆者가 「大學新聞」(1988·10·17)에 쓴 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잊을 수 없는 스승」과의 체험적 중언으로 적어볼까 한다.

筆者가 길중한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1965년말 법대입학 구두시험에서였다. 金辰교수와 두분의 추상같이 엄격해보이던 그날의 인상은 지금도 생생하며, 언젠가 선생님께 그 말씀을드렸더니, 그랬더냐고 빙그레 웃으셨다. 한 마디로 선생님의 풍채는 로마元老院議員을 연상시키는 氣骨이壯大한 古典的 巨軀型이고, 행동이 중후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시며 논리정연하게 피력하시는 스타일이시다. 젊으셨을 때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패기와 의지로서 원칙주의적이며 완벽주의자에 가까왔다고 한다. 연로하셔서도 기억력이 남달라 서울대학교와 법학계의 산 증인으로 통하였다.

동숭동 법과대학의 붉은 벽돌 강의실에서 2학년 1학기때 「民法總則」, 2학기때 「物權法」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다. 선생님은 원래 「서양법제사」 담당교수로 서울대학교에서 1946년 9월28일 오전9시에 한국인으론 최초로 강의하신분임은 서울대학교 역사에기록되고 있다. 法大의 名講義로 이름나 있기도 하였다. 그런데 筆者가 들던강의모습은 강단의 의자에 저걸음에 한 말씀 하시는듯 그리 박력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무렵 연탄가스중독사고를 당하셔서 다소 기억력삼실과 언어장애의 기미가 있으셨다 한다. 그러나 그것도잠깐이고, 원체 체력이 좋아 완전극복하시고는 문교부차관으로 임명되셨다. 물론이 「外道」는 오래 가지않고 1년만에 法大로 돌아오셨고, 그후 法大學長, 서울대학원장을 역임하시면서 1985년에 정년퇴임하실때까지 學者로 머무셨다. 한때 사고를 당하셨던 기억과는 멀리 老益壯으로 열굴에 和氣가 감돌때 정력적으로 저술과 학회 활동을 주재해 나가셨다.

筆者는 이러한 晩年 10년가량을 선생님을 비교적 가까이 모실 수 있었던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1979년에 독일유학에서 귀국하여 서울대에 발령받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과의 관계는 다소 미묘했다. 한 마디로 엄명하긴 어렵지만, 석사시절부터 民法學 계통을 밟지않은筆者가 西洋法制史 전임교수로 들어오려는 것을 선생님은 반대하셨다. 당시 선생님을 속으로는 원망도 했지만, 선생님으로서도 원래 담당하셨던 西洋法制史에대해 애착이 크셨던 것이다.

한국의 「사비니」로 推仰받아

◇故 金曾漢 박사

선생님은 점점 民法學의 권위자로서 정착되셨지만, 金曾漢 民法學의 기초와 특징이라면 그의 法制史的 관심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필자는 독일의 로마니스트(Romanist)로서 역사법학파의 총수였던 사비니(Friedrich von Savigny)와 비슷한 점이 있어 선생님을 「한국의 사비니」라고 부른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관심에 기초를 두면서도 결국 民法學者로 大成한 결과를 본다면, 우리의 民法學을 건설하기 위하여 독일의 전통법질서를 찬양하고 체계화했던 게르마니스트(Germanist)인 오토 폰 기이르케(Otto von Gierke)를 방불케 하기도한다. 사실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民法學의 제정과정과 민법이론 구성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시고 탈독하신 책 기이르케의 「독일私法」(Deutsches Privatrecht)이었다. 기이르케의 독일 전통적 법질서에 대한 이해를 직접 소화하고, 거기에서 한국의 민법이론의 방법과 체계를 발견하였으며, 이것은 처음에 의존하였던 일본인법학의 테두리를 넘어서 「韓國民法學」으로 정착되는 계기요, 발판이 되었다.

길중한민법학의 특징이라면 法制史的,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보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 알맞고, 보다 적절하게 사회 현실을 규율할수 있는 이론을 구성하려고 하였다는 데에 있었다. 1953년7월에 民法典草案이 완성되어 1954년10월에 정부안으로서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이과정에서 민법학자들이 「民法案意見書」를 내어 상당히 반영됨으로써 刑法보다는 民法制定에서는 바람직한 모를 보여주었다. 이때 「民事法硏究會」를 결성하여 참가한 선생님은 「민법학의 旗手로서 1956년부터 민법학 저서를 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安二濬선생과 함께 일본의 와가쯔마 (我妻榮) 民法교과서의 譯編형식으로 1958년까지 「物權法」, 「新民法總則」, 「新債權法總論」, 「新債權各論」(上)을 내었고, 1965년에 「新債權各論」(下)를 출간하였다.

한국의 민법학은 이렇게 출발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에 들어와 선생님은 기이르케를 포함하여 독일 법학자들의 저서를 연구하여 다시 한차례 民法學저서로 반영하였다. 1961년의 「新物權法」(上)에서 시작하여 1972년 한때 自營하시던 眞一社에서 「新稿民法總則」을 내셨다. 1978년에는 「民法論集」을 내셨고, 1979년에는 「債權總論」을 출간하셨다. 「債權各論」의 改稿를 늘 과제로 생각하는 도중에 1981년 여름부터 民法改正委員會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1982년에 民事法改正案을 국회에 제출하여 1983년말에 통과시켰다. 이에 다시 1983년4월에 「新稿民法總則」 改正版을, 1984년10월에는 「物權法講義」의 개정판과 「債權總論」의 改正版을 博英社에서 내었다. 宿願이셨던 「債權各論」은 1988년3월에 나왔는데, 筆者가 미국에서 1년 체류하고 8월에 돌아와 平倉洞自宅으로 찾아뵈었더니 선생님은 이 마지막 저서에 미리 싸인을 해두고 기다리고 계셨다. 병환중에 死力을 기울인 脫稿라는 말씀과 함께 떨리는 손으로 받아 집에 와 읽어보니 그 原文에 이렇게 적혀있다. 「내가 나 自身의 獨自的인 체계를 세워가며 민법교과서를 쓰겠다고 마음먹고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 「新物權法」(上)(1960, 法文社)이었다. 그후 나는 文敎部에 前後2回, 서울大學校內에서 補職生活 10年이라는 식으로 원고집필에 전념할 수 없는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 그렇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중단은 하지않고 계속한결과 이제 겨우 끝을 맺었다. 「新物權法」을 낸지 28년만에 財産法講義가 일단락을 보게된 셈이다.(中略) 이 책을 엮음에 있어서 첫째로 힘쓴 것은 우리 大法院判例를 되도록 많이 인용한 것이며, 그와 반대로 우리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일이 없는 외국의 판례따라 위는 되도록 언급조차 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읽어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事例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筆者는 이 序文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學者로서 日本의 法理論에서 출발하여 獨逸法의 理論을 거쳐 韓國法理論으로 정착하는 學問的 旅程을 완성하셨구나 하는 감회를 느꼈다. 법학에 있어서 이 길이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닌데, 선생님은 평생에 걸쳐 남다른 天賦의 知力과 투지로 해내신 것이다. 특히 物權行爲論 가운데의 物權的 期待權論, 共同所有論, 消滅時效論 등 선생님의 이론적 구성은 한국민법학의 발전을 대표하는 金字塔이라고 할만하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한국민법학의 정착을 강조하셨다.

1985년9월10일 번대에서 정년퇴임강연을 가졌고, 본부에서의 퇴임식에서 퇴임사도 감동적이었다. 언론들이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눈여겨 크게 보도해주었다. 「신동아」 잡지에서는 선생님의 밝은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오늘의 한국인」 시리즈에 소개하기도하였다. 선생님은 고별의 말씀가운데 『대학인은 인간적으로 왜 소화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고 하셨고, 『나는 모른다고 해서는 교수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그만큼 선생님은 스케일이 컸고, 학문적으로 自信이 있으셨던 것이다. 京城帝大가 낳은 몇분의 天才로 全科目에서 A학점을 받은 두뇌에다 건강과 투지력이 부여되었으니 그럴만한 분이셨다. 이런 분이 官界나 다른 분야에로 나가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타고난 學究心으로 평생 대학을 지켜 법학자가 되었다는 것은 서울대학교와 한국법학계에 큰 다행과 이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학문적 공적으로 1987년에 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 되셨고, 건강이 허락하는대로 餘生은 이에 충실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선생님의 갑작스런 發病 소식이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왜?』하고 놀랐다. 혹시 즐겨 드신 술의 중삼이 아닐까 하는 얘기

城大출신, 全科目A학점 받은 天才

─ 母校學長 大學院長 역임한 法學界의 巨星 ─

著書 28권, 論文 1백 30여편 남겨

지 않기로 한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읽어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事例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筆者는 이 序文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學者로서 日本의 法理論에서 출발하여 獨逸法의 理論을 거쳐 韓國法理論으로 정착하는 學問的 旅程을 완성하셨구나 하는 감회를 느꼈다. 법학에 있어서 이 길이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닌데, 선생님은 평생에 걸쳐 남다른 天賦의 知力과 투지로 해내신 것이다. 특히 物權行爲論 가운데의 物權的 期待權論, 共同所有論, 消滅時效論 등 선생님의 이론적 구성은 한국민법학의 발전을 대표하는 金字塔이라고 할만하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한국민법학의 정착을 강조하셨다.

1985년9월10일 번대에서 정년퇴임강연을 가졌고, 본부에서의 퇴임식에서 퇴임사도 감동적이었다. 언론들이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눈여겨 크게 보도해주었다. 「신동아」 잡지에서는 선생님의 밝은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오늘의 한국인」 시리즈에 소개하기도하였다. 선생님은 고별의 말씀가운데 『대학인은 인간적으로 왜 소화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고 하셨고, 『나는 모른다고 해서는 교수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그만큼 선생님은 스케일이 컸고, 학문적으로 自信이 있으셨던 것이다. 京城帝大가 낳은 몇분의 天才로 全科目에서 A학점을 받은 두뇌에다 건강과 투지력이 부여되었으니 그럴만한 분이셨다. 이런 분이 官界나 다른 분야에로 나가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타고난 學究心으로 평생 대학을 지켜 법학자가 되었다는 것은 서울대학교와 한국법학계에 큰 다행과 이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학문적 공적으로 1987년에 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 되셨고, 건강이 허락하는대로 餘生은 이에 충실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선생님의 갑작스런 發病 소식이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왜?』하고 놀랐다. 혹시 즐겨 드신 술의 중삼이 아닐까 하는 얘기

身의 獨自的인 체계를 세워가며 민법교과서를 쓰겠다고 마음먹고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 「新物權法」(上)(1960, 法文社)이었다. 그후 나는 文敎部에 前後2回, 서울大學校內에서 補職生活 10年이라는 식으로 원고집필에 전념할 수 없는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 그렇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중단은 하지않고 계속한결과 이제 겨우 끝을 맺었다. 「新物權法」을 낸지 28년만에 財産法講義가 일단락을 보게된 셈이다.(中略) 이 책을 엮음에 있어서 첫째로 힘쓴 것은 우리 大法院判例를 되도록 많이 인용한 것이며, 그와 반대로 우리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일이 없는 외국의 판례따라 위는 되도록 언급조차 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읽어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事例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筆者는 이 序文을 읽으면서 선생님은 學者로서 日本의 法理論에서 출발하여 獨逸法의 理論을 거쳐 韓國法理論으로 정착하는 學問的 旅程을 완성하셨구나 하는 감회를 느꼈다. 법학에 있어서 이 길이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닌데, 선생님은 평생에 걸쳐 남다른 天賦의 知力과 투지로 해내신 것이다. 특히 物權行爲論 가운데의 物權的 期待權論, 共同所有論, 消滅時效論 등 선생님의 이론적 구성은 한국민법학의 발전을 대표하는 金字塔이라고 할만하다.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한국민법학의 정착을 강조하셨다.

1985년9월10일 번대에서 정년퇴임강연을 가졌고, 본부에서의 퇴임식에서 퇴임사도 감동적이었다. 언론들이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눈여겨 크게 보도해주었다. 「신동아」 잡지에서는 선생님의 밝은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어 「오늘의 한국인」 시리즈에 소개하기도하였다. 선생님은 고별의 말씀가운데 『대학인은 인간적으로 왜 소화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고 하셨고, 『나는 모른다고 해서는 교수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그만큼 선생님은 스케일이 컸고, 학문적으로 自信이 있으셨던 것이다. 京城帝大가 낳은 몇분의 天才로 全科目에서 A학점을 받은 두뇌에다 건강과 투지력이 부여되었으니 그럴만한 분이셨다. 이런 분이 官界나 다른 분야에로 나가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타고난 學究心으로 평생 대학을 지켜 법학자가 되었다는 것은 서울대학교와 한국법학계에 큰 다행과 이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학문적 공적으로 1987년에 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 되셨고, 건강이 허락하는대로 餘生은 이에 충실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선생님의 갑작스런 發病 소식이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왜?』하고 놀랐다. 혹시 즐겨 드신 술의 중삼이 아닐까 하는 얘기

도 하였고, 아니면 정년퇴임후 아직도 정정한 활동력을 사서 동아대학교에서 번대학장으로 모셔간 것이 서울~부산간의 잦은 여행으로 무리가 가신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였다. 병이라는 진단을 가족치지들은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선생님께서도 아마 아시고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그래서 病中에서도 뵈면 국내 번학계와 미국, 독일의 학계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셨다. 말씀은 점점 과거의 회고담을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기울어지셨지만, 후배학자들의 새로운 주장과 외국학계의 동향을 즐겨 이셨다. 마지막 저서에도 아드닌 金學東교수와 동기되는 후배 학자들로 구성된 「私法硏究會」의 연구 논저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았으며 이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고 기록하셨다.

晩年에는 사모님의 영향으로 기독교신앙에 심취하시고, 특히 성경연구에 몰두하셨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선생님께서 晩年에 기독교신앙에 심취하신것이 『매우 뜻깊게 생각된다』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글썽해 하셨다. 흔히 법학자가 논리적이고 現世的이라서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면에서 선생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고 救援을 待望하는 순진한 人間 그자체로 보였다. 臨終에도 종교적으로 고요히 끝마치셨다고 가족들은 전한다.

선생님의 한평생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유복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로서 30여편의 권의 저서와 1백30여편의 논문에 이르는 큰 업적을 내었고, 교육행정가로 대학 발전과 사법시험 및 행정제도에도 영향을 미쳤고, 마지막 신앙인으로 깨끗한 生의 정리를 하셨다. 또한 자식들이 어버이의 위업을 이어갈만큼 성숙하였다. 이 위대한 스승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예외적인 巨木으로 외롭게 남겨드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떨어진 잎과 열매가 자양분이 되어 우리도 그만큼 성장해야할 텐데, 우리의 뿐은 뿌리가 그만큼 폭넓고 깊이 있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89年의 展望

北方정책의 빛과 그늘

초 대 석

國內재벌들 東歐圈나들이로 支店개설 한창

開發참여 손짓하는 蘇聯의 心中 잘 把握해야

中國은 北韓의식 政經分離의 交易만을 고집

國交수립 前提로한 經濟협력정책 펼치도록

— 北韓의 對南전략 修正없는한 경계심 풀지말아야

安定된 분위기에 當局의 愼重한 對應策 긴요

尹 宗 鉉

〈46년 商大卒·前한국일보 논설고문·本報 編輯委員〉

이제 北韓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서울올림픽 이후 날로 세차게 파동치는 우리 韓半島의 緊張緩和流勢를 살피면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얻어야 할 의문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물론 北方外交의 진전과 그에 따르는 이땅의 力學구조變革에도 유념돼야 할 문제점이 적지는 않으나 우리 南北관계의 장래와 문제상황을 타결하는데 있어 平壤당국은 틀림없이 명백하고 결정적인 중요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앞날 北측의 對應을 깊숙하게 파헤치고 그들의 「誤答놀이」의 경계해야 할 필연성은 그래서 크다 하겠다.

韓國의 北方外交는 분명히 急進하고 있다. 東歐공산권의 헝가리와는 지난 2월 1일 정식으로 修交를 하였다. 유고슬라비아와의 貿易사무소, 중국과의 省단위 무역사무소가 이미 설치되었고, 蘇聯과는 3월에 개설할 예정이다. 불가리아 폴란드 東獨 체코와의 상무소설치협의도 계속 진전중이며 베트남과의 經濟協力마저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이런 바람을 타고 우리와 그들 나라사이의 交流는 마치 보물이 터진듯 한 상태다. 무역과 합작진출을 위한 商談이 성황을 이루고 財閥企業들의 支店개설 전시회개최, 資料조사등을 위한 현지활동이나, 그 실상과 공산세계의 내부를 알려려는 특파원기사들이 경쟁을 벌이다시피 하고 있다. 몇몇 재벌총수가 蘇聯 中國 東歐圈나들이를 했다는 사실은 이미 구문에속한다.

우리 쪽에 의한 일방적인 交流전개는 물론 아니다. 이히려 北方공산국들의 接近과 촉구가 더 절절한 면이 없지 않았다. 先着客인 헝가리는 말할 것도없고 서울五輪을 계기로 바짝 다가선 소련의 「유혹」도 매우 뜨겁기만 하였다. 대회기간중 소련과 동구대표단들은 우리國內有力企業들의 실적자료를 살살이 수집하였고 기회 있을때마다 韓國정부 관리들과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을 하였다. 우세한 스포츠競技와 함께 볼쇼이 발레단이나 모스크바 필하모니 같은 藝術장면까지 서울무대에서내보이며 그의 韓國데뷔를 장식시킨 蘇聯은 지금 한창 시베리아 開發參與를 손짓하고 있다.

蘇聯의 그 熱度는 요즘 선착자인 中國보다 오히려 훨씬 더한 것 같다. 사실 83년 被拉民航機의 韓國內寄着사건 처리문제로 北京당국과 우리 정부간에 첫 접촉이 있은 연후 韓中관계는 비정치적인 여러부문에서 점진적인 好轉성향을 계속 중진시켜왔다. 스포츠화 學術文化 분야의국제행사 참가나 해상조난사고구제협력, 교포왕래 및觀光편의 제공, 直通해운항로 개설조치등도 그렇지만 88년엔 交易量만도 약 30억달러에 이를 정도이다.

그런 中共보다 對韓관계개선에 더욱 적극성을 띠고 있는 蘇聯! 그래서 머지 않아 서울에는 그들의 무역사무소가, 그리고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엔 우리측 무역사무소가 서로문을 열게까지 된 그 근원과 깊은 속셈은 정말 무엇일까? 單答이나 速斷은 두구에게도 금물이겠지만 우선 그 가장 표면화한 要點은 經濟的 引力이다.

87년도의 韓蘇무역은 불과 2억달러에도 못미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베리아 開發協力이라는 事案을 놓고 생각할 때 그로 인해 가능해질 양국경제의 상호補完性은 강렬한 매력과 미련이 따를만하게 한다. 서울올림픽광장에서 새로와진 소련의 對韓인식·親韓무드와 韓國經濟를 생동하게한 開發에너지를 시베리아로 불러들였으면 하는 소련의 충동은 그래서 더욱 비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接近思案이 그처럼 단순한 經濟분야로 한정된 것인지는 크레믈린首腦 어외에 아무도 모른다. 서울로는 미소를보내면서 平壤으론 신예무기와 할동군사훈련을 선사하고 있다. 6·25때는 北韓측의 후원자요 조정자였다. 역사적으론 1800년대후반부터 韓半島를 손아귀에 넣으려 했고 근래까지 북한집단만 계속 두둔해온터이다. 고르바초프 등단이래 3년전엔 우라지보스톡 선언으로 亞·太지역국가안보회의를 주창하고 서울올림픽 開幕前夜(88·9·16)엔 그라스노얄스크연설에서 「韓國과의 經濟관계수립가능성」을 발언했었다.

그리고 보면 크레믈린의 對韓접근 관계개선추구는단순한 경제적 관점 보다는 그 어떠한 전략적인 면에 더욱 큰比重을 두려는 것 같은 警戒點을 잊을수 없게도 한다. 사실 蘇聯으로 말하면 國力이 우리보다월등한 국가다, 방대한 資源과 공업력에다 美國과 더불어 宇宙정복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첨단과학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 강대한 蘇聯이 지금 우리에게 「러부 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經濟협력레벨에서 求하는 握手 그것이과연 우리측계산과 걸맞아떨어질수 있을까? 물론 직접 교류가 거의 없던 共産대국이나 다른 공산국가들과의 相互관계수립이란 의의가 큰게 사실이다. 또 그것이 우리 韓國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北方外交로 굳게 합쳐진 손길인만큼 더욱 보람차다고 할 수가 있다.

이처럼 우리가 主導하는 共産제국과의 關係증진은분명히 이땅의 緊張완화·戰爭방지·分斷해소를 위한새 차원의 平和文化를 창출해가고 있다. 4대강국을 배경으로한 力學관계에 부드러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고 東北亞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케 될 것이다. 美蘇間의 새 데땅뜨와 中蘇의 開放정책이 우리 北方外交진전에 계속가세를 하게 될 것도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戰略的인 스텝은 바로 그 乘勢를 잡고 비정치위주의北方外交를 政治外交관계로승화시켜 共産제국과의 公式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또 延長線上에서 韓半島의 安全 및 安定化를 위한 국제적 기틀을 확립해야 한다. 병행하여 南北관계의 개선과 平和공존체제의 정착을 추구토록 할 것은 물론이다.

지난 10월초 盧泰愚대통령이 國政연설을 통하여 「北方外交와 南北관계 개선을 한 수레의 두 바퀴로 보며 추진」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런 戰略高地를 멀리 내다보면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선 「7·7宣言」으로 北韓에 대한 開放의 門을 활짝열었다. 8·15광복절 경축사에선 「南北頂上회담을 위해 서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저쪽의 대답을 기다리는 참이다.

10·18유엔演說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맥락을 깔면서 ①南北和解와 統一촉진을 위한 무조건頂上會談 개최 및 不可侵선언 또는 武力불행사協議를 앞세웠고 ②南北交流의 接點으로서비무장지대내 平和都市 건설 ③東北亞지역의 영구평화와 번영을 위한 6개국(南北韓·美·蘇·中·日)平和協議會의 설치등을 제안하였다.

간추려 생각하면 北方外交의 진척과 그에 따른周邊情勢변화를 등에 업고 南北관계개선과 韓半島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즉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려는 큰 戰略을 안팎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民이면누구든지 그런 변화, 다시말해서 南北관계의 急回轉과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가성큼 다가섰으면 하는 마음간절할 것이다. 여기 1989년 한 해를 지켜보는 우리들의 눈길과 마음이새삼 뜨거워지게 한다.

그러나 아직 樂觀은 금물이다. 悲觀할 필요도 없다. 過剩기대 또한 삼가져야 하고 지나치게 서둘며 躍步만 걷듭하는 정부당국의 대응도 좀더 차분하고 냉철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大勢의 본질을 따져 볼때 北方外交 진전과 그로부터 온 긴장완화의 조짐은 앞에서 지적한대로 주로 經濟引力에 연유된 것이다. 中蘇나 東歐圈국가들 모두가 交易과 함께 경제개발성공에서 얻어진 우리의 技術 資本 경험등을 그들 개발에 참여시키고 협력을 구하려는 안목이 뚜렷하다.

이 점에서 그 經濟交流와 협력을 촉매로 「經濟발전을 겨냥하는 우리 標的과는 우선 視角차이가 없지 않다. 특히 적극적인對韓접근동향을 보이는 蘇聯이나 이미 韓國과의 관계가 깊숙해진 中國이 北韓을 의식하는 나머지 「政經分離」의 원칙과 「民間레벨의 交易」같은 限界性을강조하는 현실은 「北方政治길」의 難行을 예상하고남게한다.

그 벽을 뚫고 넘는 가능성이 전혀 없으리라는듯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同盟관계에 있는 北韓측이 그 두 나라의 對韓正式修交를 끝내 반대할 경우, 전도를 낙관할 근거는 매우 희박하게 현실이다. 얼마전 고르바초프書記長의유력한 한 브레인인 이즈베스차紙의 보빈政治評論員이 「韓半島에는 2개의 독립된 主權國家가 존재하며 美蘇中日은 이를 交叉승인하고 유엔동시가입을 실현시키라는게 일반적인 견해들이다.

그것은 對決구조없이 北韓이 경제·사회를 개방했을 경우, 金父子체제의 붕괴를 면하기 어려우리라는 비관때문이다. 또 남북간國力(특히 경제)의 격차가 절정에 달한 현시점에서는南韓의 거대한 磁力을 당해낼 도리가 없다는 뻔한사실 때문이다.

그 때문에 盧대통령이유엔연설에 한 바로 그날(88·10·18), 金日成은 ①對美平和협정 체결 ②駐韓美軍 철수 ③韓半島의 核병기의 철수 ④交戰비핵평화地帶化 ⑤東西교역 증진 ⑥南北韓 對話 ⑦北韓의 國際社會 진출 ⑧南北韓 유엔동시가입 ⑨南北韓 聯邦 ⑩南北韓 聯合 ⑪南北韓 統一민족主權國家 ⑫南北韓 統一민족國家 ⑬南北韓 統一민족連邦 ⑭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⑮南北韓 統一민족聯合 ⑯南北韓 統一민족聯邦 ⑰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⑱南北韓 統一민족聯合 ⑲南北韓 統一민족聯邦 ⑳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㉑南北韓 統一민족聯合 ㉒南北韓 統一민족聯邦 ㉓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㉔南北韓 統一민족聯合 ㉕南北韓 統一민족聯邦 ㉖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㉗南北韓 統一민족聯合 ㉘南北韓 統一민족聯邦 ㉙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㉚南北韓 統一민족聯合 ㉛南北韓 統一민족聯邦 ㉜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㉝南北韓 統一민족聯合 ㉞南北韓 統一민족聯邦 ㉟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㊱南北韓 統一민족聯合 ㊲南北韓 統一민족聯邦 ㊳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㊴南北韓 統一민족聯合 ㊵南北韓 統一민족聯邦 ㊶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㊷南北韓 統一민족聯合 ㊸南北韓 統一민족聯邦 ㊹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㊺南北韓 統一민족聯合 ㊻南北韓 統一민족聯邦 ㊼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㊽南北韓 統一민족聯合 ㊾南北韓 統一민족聯邦 ㊿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51)南北韓 統一민족聯合 (52)南北韓 統一민족聯邦 (53)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54)南北韓 統一민족聯合 (55)南北韓 統一민족聯邦 (56)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57)南北韓 統一민족聯合 (58)南北韓 統一민족聯邦 (59)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60)南北韓 統一민족聯合 (61)南北韓 統一민족聯邦 (62)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63)南北韓 統一민족聯合 (64)南北韓 統一민족聯邦 (65)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66)南北韓 統一민족聯合 (67)南北韓 統一민족聯邦 (68)南北韓 統一민족共和國

名譽敎授칼럼

엉터리 社會言語學

밭이 지는 社會、言語변화로 實感
「건강하세요」 人事말 듣기 좋아

黃燦鎬
〈前人文大 교수〉

최근에 발달한 한문분야에 社會言語學이라는 것이 있다. 즉 인간은 사회생활을 말(言語)로 한다. 따라서 이 말들을 분석해보면 그 사회의 어떤 특징 비슷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얼마전에 言語學을 연구하려 가 있던 친구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미국사람이 찾아 갈텐데 필요한 도움을 주어달라는 사연이었다. 그 편지를 받고 난지 얼마 안되어서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왔다. 바로 사회언어학을 전공하는 친구였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불쑥 「롱대문 시장 구경을 갔는데 참 재미가 있더군요. 그런데 商權은 以北 사람들이 잡고 있지 서울사람들은 거의 밀려났더군요」라는 깜짝 놀라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었더니 한국에 도착즉시 동대문시장으로 가서 상인들이 쓰는 말들을 녹음해다가 그 양을 분석해 보았다는 것이다. 그 친구의 우리말 실력으로는 「무사령(늦둔) 둥의 서울 토박이의 사투리같은 것을 알리 없겠지만 역센 이북사투리의 억양은 금시 귀에 들어온 모양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나는 「사회언어학」이라는 것에 많은 흥미를 느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도 생각했었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이 마음만 앞섰을 따름이지 착수조차 못하고 말았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에 대한 막연한 槪念이 추측될 뿐, 그 문적인 내용이나 방법론같은 것은 전혀 모른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언어학적인 고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느낌과 관찰을 한번 적어보려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지금 語學硏究所에서 외국인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에게 막상 설명을 하려면 매우 힘든 말들이었다 「먼」이다. 「정」이다. 「한」이다라는 우리말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역사속에서 키워진 의미영역을 설명해서 납득시킨다는것이 쉽지 않다. 또 예를 들어 「나물」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자. 콩나물·숙주나물등 집에서 길러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사리나물·도라지나물·고비나물·참죽나물등 먹을 수 있는 모든 풀과 나무 잎등을 나물이라고 하고 그 종류는 무려 백가지가 넘는다.

또 창란젓·명란젓·새우젓등은 우리가 즐겨먹는 발효식품이지만 눈타리젓·또라젓·풀치젓등은 먹도 보도 못한 것들이다. 사전에 나와있는 것만 무려 54종이나 된다.

인간은 소처럼 초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풀도 골라서 먹어야 한다. 먹어서 독이 없고 양념을 하면 맛갈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풀은 하나도 남김 없이 「나물」로 먹었다. 미국이나 독일에는 고사리가 산을 덮을 정도로 많은데 그들은 독초라고 해서 사료로도 안 쓰는데 우리나라에는 나물중에서도 별미의 나물이다. 먹는 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 나물이란 말에 해당하는 영어가 없다. 한영사전에는 herbs, wild greens, salad makings라 나와있는데 herb란 초기에는 식용으로도 쓰기는 썼지만 주로 약재나 사료로 썼다. a herb doctor가 漢醫師라는 뜻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일본어에도 우리의 나물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정월이렛날 일곱가지 풀을 넣어 죽을 끓여먹었는데 이는 만병을 막는다는 미신에서 온것이지 식료품으로 먹은 것이 아니다. 젖같이란 것도 생선을 오래 저장해두고 먹기위한 지혜였던 것이다. 그러니 나물도 젖같도 우리가 가난을 견디어 나오기 위한 안간힘의 지혜였던 것같다.

육류요리를 한번 살펴보자. 소 한마리를 잡아서 안 먹고 버리는 것은 뿔과 털뿐인 것같다. 발은 족탕이 되고 무릎은 도가니탕이 되고 꼬리는 꼬리곰탕이 된다. 소머리탕도있지 않고 설렁탕이 된다. 창자는 물론 곱창이 되고 곰탕이 된다. 초기의 미국 유학생들은 도살장에 가서 창자를 거저 얻어다가 곰탕 싸게 별였다. 꼬리 별미도 힘들었던 것같다. 「입에 풀칠한다」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나올만한 말이었던 것 같다.

내가 海州高普를 다닐때 집은 장연이라는 군청소재지에 있었다. 이 때만 해도 동네 윗사람들한테 하는 아침인사는 「진지 잡수셨읍니까?」였다. 밥을 자고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읍니까?」라고 한다. 「진지」는 정통 「밥」이었다. 어차피 이 인사는 대부분 집안 어른들께 하는 인사고 밖에 나가서 뵙게되는 어른들에게는 「진지 잡수셨읍니까?」였다. 안녕히 주무시고 나면 진지를 드실테니까, 그 시간 경과에 따르는 인사라고 한다면 그럼 수도 있겠지만 이 인사도 아침에 진지를 들고 오는 것이 하나의 복이었던 당시의 가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었나라고도 생각된다. 요사히는 시골이면 모를까 서울에서는 이런 인사는 들어볼 수 없다. 전에 안쓰던 「안녕하십니까?」가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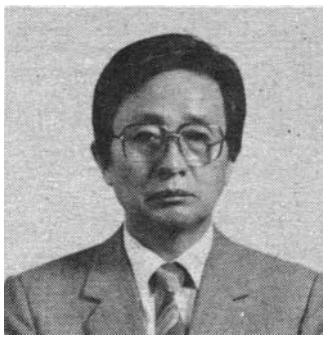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난 요즈음에는 어쩌다 만나는 제자들이나 후배들한테서 「건강하시죠?」라는 인사를 자주 받는다. 이것도 전에 못들던 인사말이다. 해어질 때는 「건강하세요」라고 한다. 따지고보면 우리 나이에 이보다 좋은 인사말이 없겠지만 「건강」「건강」하니까 역설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걱정해주는 것같아서 아뿌해지기도 한다. 어쩌다 「여전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받을 때가 있다. 이 「여전」의 「전」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보다는 한해라도 젊었을 때를 의미한 것이니까 늙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훨씬 듣기 좋다. 단 「여전히」 궁하시군요」라는 뜻만 들어있지 않다면 말이 아직도 점심을 못먹는 결식아동들이 많다는 신문보도가 있는것으로 보아 가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진지 잡수셨읍니까?」라는 인사가 없어져 가는 것으로 보아 잘 살게되어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또 요사히는 「개새끼」라는 욕을 흔하게 듣지 못한다. 이런 현상들을 진짜 社會言語學者들은 어떻게 풀이할까 궁금하다. 나는 우리의 앞날이 밝아지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사회언어학(?)적으로.

外販서적 禮讚

同門 수필

우리가 하는 일은 대개 책을 밀천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부분 책들은 사야하는 것이 우리네 실정이다. 책을 구입하는 길에는 대충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책방으로 주문해서 책을 구입하는 길이다. 그리고 다른 나는 손수, 점두에 나가서 책을 골라오는 길도 있다. 세번째 책을 구입하는 길로 외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세가지 방법중에서 얼핏 생각하면 세번째의 경우가 가장 편리한 도서구입의 길이라고 단정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나 두번째 경우는 어떻든 상당한 시간을 내어서 책점까지 우리자신이 가야 한다. 그위에 요나즘 책점들은 아주 대형화되어 있다. 거기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있어서 필요 도서를 고르고 대금을 치르는 일도 여간이 아니다. 그런데 외관제도를 이용하면 그런 수속절차, 시간과 정력낭비가 모두 생략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당해보면 외관도서를 구입하는 일도 생각될 만큼 좋은게 아니다. 대개 외관원으로 우리 가정이 나 직장에 책을 들고 오는 사람들은 다소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들고 오는 책들은 대개 가 경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판사의 전집류들이다. 그런 책들은 우리 경우 이미 구입한 것들이거나 또는 부피가 너무 커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것을 체면이라든가 정외로 한달에 얼마씩 제하는 월부로 사야한다. 그리고 우리 또래가 되면 그런 경우가 거의 격월로 생긴다. 그리하여 가뜩이나 가벼운 월급봉투가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유때문에 나는 꽤 오랫동안 서적외판제도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얼마전 일어난 일이 그런 내생각을 아주 깨닫게 잘못된 것임을 제는 해포가 된 일이지만 어느날 내연구실로 옛날 직장에서 서무를 보던 분이 찾아왔다. 그때 그분은 옛날 직장을 정년으로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그



金容稷
〈58년 文理大卒
母校人文大교수〉

나는 그런 내생각을 나는 몇번 경험을 통해 알고있는터였다. 그래 내 대답인즉 이제까지 우리해석은 〈어진자는 산을 즐기고 슬기로운 자는 물을 즐간다〉는식으로 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떼어 읽어서는 제대로 경전의 뜻이 통하지 않는다. 논어의 이부분은 〈마음이 어질고 슬기로운 자는 山水, 곧 자연을 즐길 수 있다〉는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문법에 맞지 않는 억설을 내어놓았다. 그러자 이분이 반색을 하면서 「그거참 그럴듯한 해석이다」라고 감탄까지 하셨다. 그리고는 곧이어 그렇게 풀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제2의 질문을 던지셨다. 물론 이때 내 해석은 즉석의 근거없는 내나름의 주장이어서 그 근거같은게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러나 이 백발의 시골선비 어른에게 그런 내생각이 통할리가 없었다. 그래 낭패, 당혹하면서 내가 빼어든 것이 옛날에 산 M출판사의 四書三經중 논어였다. 그런데 거기 갈피에 놀라웁게도 내 한 영터리 해석과 꼭같은 풀이가 그것도 어엿한 정통 주석으로 나와있는게 아닌가. 내가 그 책의 해당부분을 펼쳐 고향 父老앞에 보여드렸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위기를 그것으로 시원스럽게 벗어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곤경을 타개하도록 만든 것은 내가 절두에까지 나가서 산 책이다. 그것은 바로 덕이 아니다. 이런 외판하는 책을 통해서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내 도서구입에 대한 선입견을 고치기로 했다. 되풀이되지만 서적 외판제도도 그나름의 좋은 점, 덕목이 넉넉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M출판사의 四書三經 번역주석이었다. 그리고는 다른 많은 책들을 그렇게 한대로 그대로 옮겨 적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 산 책들을 별로 요긴하게 읽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에 고향 父老 한분이 상경하셨다. 이분은 내전공을 착각하셔서 이따금 고전의 중요한 귀절의 해석을 물고 하셨다. 그런데 그날은 느닷없이 이야기가 「논어」에 미쳤다. 그분의 말씀인즉 「논어」에 나오는 仁者樂山, 智者樂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것이었다. 어차피 이 백발의 시골선비 어른에게 그런 내생각이 통할리가 없었다. 그래 낭패, 당혹하면서 내가 빼어든 것이 옛날에 산 M출판사의 四書三經중 논어였다. 그런데 거기 갈피에 놀라웁게도 내 한 영터리 해석과 꼭같은 풀이가 그것도 어엿한 정통 주석으로 나와있는게 아닌가. 내가 그 책의 해당부분을 펼쳐 고향 父老앞에 보여드렸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위기를 그것으로 시원스럽게 벗어났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곤경을 타개하도록 만든 것은 내가 절두에까지 나가서 산 책이다. 그것은 바로 덕이 아니다. 이런 외판하는 책을 통해서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내 도서구입에 대한 선입견을 고치기로 했다. 되풀이되지만 서적 외판제도도 그나름의 좋은 점, 덕목이 넉넉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李國柱(35년 醫大卒·모교 名譽敎授)=최근 모교의 대에 장학기금 2천만원을 기탁.

▲閔寬植(40년 農大卒·本會理事·아세아정책연구소장)=1월9일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

▲趙炳華(43년 師大卒·本會理事·詩人)=1월7일 열린 한국문인협회 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의 새이사장에 선출됐다.

▲韓泰熙(50년 工大卒·本會理事·金星社社長)=지난12월27일 력키엔지니어링 사장에서 금성사 정보사업담당 사장으로 전보.

▲李正煥(50년 文大卒·本會理事·前韓國動力資源硏究所고문)=최근 중구 명동2가31-13에 광산자원과 온천개발 연구사업을 위한 正寶資源(株) 地熱硏究所를 설립. 電話 773-2734.

▲申勳澈(51년 工大卒·本會理事·第一毛織·三星航空 상담역)=1월7일 三星航空사장에서 第一毛織·三星航空 상담역으로 전보.

▲具平會(51년 文大卒·本會副會長·력키금성상사 회장)=지난12월28일 력키금성상사 회장에서 력키금성그룹부회장으로 전보.

▲全擧濟(51년 文大卒·本會理事·韓國科學技術院長)=지난 12월23일 열린 한국과학기술원 정기이사회에서 한국과학기술대학 학장을 겸임토록 선출됐다.

▲李丙奧

▲孫瓘鎬(55년 法大卒·本會理事·公務員年金管理公團 이사장)=지난 12월29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理事長에 임명됐다. 孫동문은 총무처 次官을 역임.

▲李信子(55년 美大卒)=과천국립현대미술관 기획으로 지난 12월31일까지 열린 88현대미술의상전에 작품 3점을 출품.

▲宋膺植(55년 法大卒·本會理事·前國會議員)=지난 1월11일 운영특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田永秀(55년 商大卒·本會理事·住宅銀行長)=1월14일 금융결제관리원장에서 한국주택은행장에 임명됐다.

▲金晃鎭(55년 文大卒·忠南大교수)=韓國뷔히너學會 회장으로서 최근 同學會 학술지「뷔히너와 현대문학」(창간호)을 기획·편집·발행했다.

▲金錫營(55년 法大卒·本會理事·태양종합상사사장)=최근 열린 대한민국 문예계간지「문학과 意識」新春號에 제1회 수필부문 新人賞을 受賞, 文壇에 데뷔했다.

▲朴永文(56년 工大卒·모교 工大교수)=최근 열린 대한전기학회 정기총회에서 89·90년도 會長에 선출.

▲趙成鈺(56년 文大卒·本會理事·유니코리아國

▲孫永禧(57년 文理大卒·本會理事·三星石油化學 사장)=1월7일 제일제당 사장에서 삼성석유화학사장으로 전보.

▲李憲祖(57년 文理大卒·本會理事·金星社 사장)=지난 12월27일 력키금성상사 사장에서 금성사 가전사업담당 사장으로 전보.

▲金膺來(57년 法大卒·本會理事·前서울시장)=지난 12월31일 국제장애자올림픽 조직위로부터 제8회 장애자올림픽대회 유공 金章을 받았다.

▲宋世昌(57년 商大卒·本會理事·三星航空 사장)=1월7일 제일모직 사장에서 삼성항공사장으로 전보.

▲李滿基(57년 商大卒·漢陽證券사장)=한양대 화술원 한양증권 사장에서 최근 선임.

▲安秉華(58년 文理大卒·本會理事·韓國電力공사 사장)=1월9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安동문은 상공부장관을 역임.

▲黃仁政(58년 文理大卒·本會理事·國際民間經濟協議會 상근부회장)=최근 KDI부원장에 임명됐다. 安동문은 상공부장관을 역임.

▲崔圭復(61년 工大卒·日進電機工業代表理事)=지난 1월1일자로 日進電機工業㈜ 전무에서 대표이사로 승진.

▲金容九(61년 文理大卒·本會理事·모교 社會大

動 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職場을 옮기셨거나 職位의 변동을 비롯, 개인의 활동 및 업적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하게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읍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 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다.

電話 : (702) 2233~5
(717) 8536 ~ 7

▲柳明集(59년 商大卒·本會理事·大農副會長)=1월5일 大農 사장에서 副會長으로 승진.

▲倉東濬(60년 農大卒·本會理事·韓國單味飼料協會 상근부회장)=최근 열린 한국단미사료협회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상근부회장으로 선임. 倉동문은 그동안 同협회 전무이사로 재직했었다.

▲朴世直(60년 文大卒·本會理事·國家安全企劃部長)=1월8일 서울올림픽 위원장 자격으로 美國 메릴랜드州 볼티모어의 타이슨주립대학에서 올림픽을 통한 인류화합과 평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인문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韓元道(60년 法大卒·中央選管委 상임위원)=지난 12월26일 中央選管委 사무총장에서 常任委員(장관급)으로 승진.

▲李勇成(60년 商大卒·財務部 기획관리실장)=지난12월26일 稅務大學長에서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영전.

▲安恭爀(62년 法大卒·財務部 제2차관보)=지난 12월26일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에서 제2차관보로 승진.

▲李載厚(62년 法大卒·辯護士)=1월10일 公正去來委員會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金仁喆(62년 師大卒·三和建設開發㈜ 會長)=지난 12월15일부터 21일까지 日本속의 韓民族史 탐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1월6일부터 19일까지 師大同窓會 東南亞시찰단원으로 싱가포르·자카르타·방콕·홍콩·타이베이 지역의 歷史·地理 탐방을 마치고 귀국.

▲林應植(63년 文理大卒·韓國放送公社 解說委員)=최근 한국방송공사 홍보실장에서 해설위원으로 전보.

▲辛國煥(63년 法大卒·貿易委 상임위원)=지난 12월29일 商工部 상역국장에서 貿易委員會 상임위원으로 승진.

▲李秀烋(63년 商大卒·財務部 제1차관보)=지난 12월26일 재무부 제2차관보에서 제1차관보로 전보.

▲李海旭(63년 商大卒·本會理事·韓國電機通信公社 사장)=지난 12월30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李동문은 체신부 次官을 역임.

▲崔炳益(63년 商大卒·本會理事·大農營業管理擔當 사장)=1월5일 미도파유통담당사장에서 大農 영업관리담당사장으로 전보.

▲河舜鳳(64년 師大卒·民正黨 政務

▲韓國元(60년 法大卒·中央選管委 상임위원)=지난 12월26일 中央選管委 사무총장에서 常任委員(장관급)으로 승진.

▲朴世直(60년 文理大卒·本會理事·國家安全企劃部長)=1월8일 서울올림픽 위원장 자격으로 美國 메릴랜드州 볼티모어의 타이슨주립대학에서 올림픽을 통한 인류화합과 평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인문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金膺來(57년 法大卒·本會理事·前서울시장)=지난 12월31일 국제장애자올림픽 조직위로부터 제8회 장애자올림픽대회 유공 金章을 받았다.

▲李憲祖(57년 文理大卒·本會理事·金星社 사장)=지난 12월27일 력키금성상사 사장에서 금성사 가전사업담당 사장으로 전보.

▲孫永禧(57년 文理大卒·本會理事·三星石油化學 사장)=1월7일 제일제당 사장에서 삼성석유화학사장으로 전보.

▲安秉華(58년 文理大卒·本會理事·韓國電力공사 사장)=1월9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安동문은 상공부장관을 역임.

▲黃仁政(58년 文理大卒·本會理事·國際民間經濟協議會 상근부회장)=최근 KDI부원장에 임명됐다. 安동문은 상공부장관을 역임.

▲崔圭復(61년 工大卒·日進電機工業代表理事)=지난 1월1일자로 日進電機工業㈜ 전무에서 대표이사로 승진.

▲金容九(61년 文理大卒·本會理事·모교 社會大

▲韓元道(60년 法大卒·中央選管委 상임위원)=지난 12월26일 中央選管委 사무총장에서 常任委員(장관급)으로 승진.

▲朴世直(60년 文理大卒·本會理事·國家安全企劃部長)=1월8일 서울올림픽 위원장 자격으로 美國 메릴랜드州 볼티모어의 타이슨주립대학에서 올림픽을 통한 인류화합과 평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인문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倉東濬(60년 農大卒·本會理事·韓國單味飼料協會 상근부회장)=최근 열린 한국단미사료협회 제10차 정기총회에서 상근부회장으로 선임. 倉동문은 그동안 同협회 전무이사로 재직했었다.

▲柳明集(59년 商大卒·本會理事·大農副會長)=1월5일 大農 사장에서 副會長으로 승진.

▲李載厚(62년 法大卒·辯護士)=1월10일 公正去來委員會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安恭爀(62년 法大卒·財務部 제2차관보)=지난 12월26일 재무부 기획관리실장에서 제2차관보로 승진.

▲金仁喆(62년 師大卒·三和建設開發㈜ 會長)=지난 12월15일부터 21일까지 日本속의 韓民族史 탐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1월6일부터 19일까지 師大同窓會 東南亞시찰단원으로 싱가포르·자카르타·방콕·홍콩·타이베이 지역의 歷史·地理 탐방을 마치고 귀국.

▲林應植(63년 文理大卒·韓國放送公社 解說委員)=최근 한국방송공사 홍보실장에서 해설위원으로 전보.

▲辛國煥(63년 法大卒·貿易委 상임위원)=지난 12월29일 商工部 상역국장에서 貿易委員會 상임위원으로 승진.

▲李秀烋(63년 商大卒·財務部 제1차관보)=지난 12월26일 재무부 제2차관보에서 제1차관보로 전보.

▲李海旭(63년 商大卒·本會理事·韓國電機通信公社 사장)=지난 12월30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李동문은 체신부 次官을 역임.

▲崔炳益(63년 商大卒·本會理事·大農營業管理擔當 사장)=1월5일 미도파유통담당사장에서 大農 영업관리담당사장으로 전보.

▲河舜鳳(64년 師大卒·民正黨 政務

▲金仁喆(62년 師大卒·三和建設開發㈜ 會長)=지난 12월15일부터 21일까지 日本속의 韓民族史 탐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1월6일부터 19일까지 師大同窓會 東南亞시찰단원으로 싱가포르·자카르타·방콕·홍콩·타이베이 지역의 歷史·地理 탐방을 마치고 귀국.

▲林應植(63년 文理大卒·韓國放送公社 解說委員)=최근 한국방송공사 홍보실장에서 해설위원으로 전보.

▲辛國煥(63년 法大卒·貿易委 상임위원)=지난 12월29일 商工部 상역국장에서 貿易委員會 상임위원으로 승진.

▲李秀烋(63년 商大卒·財務部 제1차관보)=지난 12월26일 재무부 제2차관보에서 제1차관보로 전보.

▲李海旭(63년 商大卒·本會理事·韓國電機通信公社 사장)=지난 12월30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李동문은 체신부 次官을 역임.

▲崔炳益(63년 商大卒·本會理事·大農營業管理擔當 사장)=1월5일 미도파유통담당사장에서 大農 영업관리담당사장으로 전보.

▲河舜鳳(64년 師大卒·民正黨 政務

▲林應植(63년 文理大卒·韓國放送公社 解說委員)=최근 한국방송공사 홍보실장에서 해설위원으로 전보.

▲辛國煥(63년 法大卒·貿易委 상임위원)=지난 12월29일 商工部 상역국장에서 貿易委員會 상임위원으로 승진.

▲李秀烋(63년 商大卒·財務部 제1차관보)=지난 12월26일 재무부 제2차관보에서 제1차관보로 전보.

▲李海旭(63년 商大卒·本會理事·韓國電機通信公社 사장)=지난 12월30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李동문은 체신부 次官을 역임.

▲崔炳益(63년 商大卒·本會理事·大農營業管理擔當 사장)=1월5일 미도파유통담당사장에서 大農 영업관리담당사장으로 전보.

▲河舜鳳(64년 師大卒·民正黨 政務

▲金仁喆(62년 師大卒·三和建設開發㈜ 會長)=지난 12월15일부터 21일까지 日本속의 韓民族史 탐방을 마치고 귀국한 후 1월6일부터 19일까지 師大同窓會 東南亞시찰단원으로 싱가포르·자카르타·방콕·홍콩·타이베이 지역의 歷史·地理 탐방을 마치고 귀국.

▲尹勤煥(54년 農大卒·前農林水産部長官)=1월 14일 한국주택은행 이사장에 임명됐다.

▲吳相洛(53년 商大卒·모교 經營大교수)=지난 12월 28일 위촉되었다.

▲金瑞鳳(54년 美大卒·美大同窓會長·同德女大교수)=1월 14일 열린 韓國美術協會 정

된 亞太변호사협회 회장에 재선됐다.

(52년 文理大卒·辨護士)=최근 하와이에서 개최 총회에서

총장)=1월 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41차 국제교육회의에 참석하고 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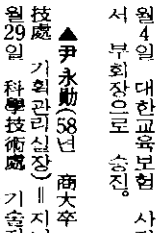
委員會사무

▲朴秉禧(56년 法大卒·本會理事·金星投資金融사장)=최근 엘지에드 부사장에서 金星投資金融 사장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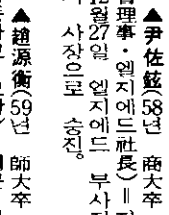
▲李起東(57년 工大卒·SKC부회장)=1월 1일자로 SKC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

▲金志柱(57년 文理大卒·本會理事·력키금성그룹 기획조정실 사장)=지난 12월 27일 금성반도체 사장에서 력키금성그룹 기획조정실 사장으로 전보.

▲辛永國(58년 法大卒·鐵道廳 차장)=지난 12월 29일 鐵道廳 기획관리실장에서 次長으로 승진.



▲李廉煥(58년 法大卒·本會理事·大韓教育保險무회장)=1월 4일 대한교육보험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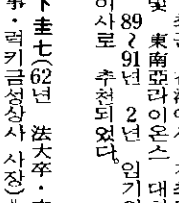
▲尹永勛(58년 商大卒·科技處 기획관리실장)=지난 12월 29일 科學技術處 기술정책실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

▲尹佐鉉(58년 商大卒·本會理事·엘지에드社長)=지난 12월 27일 엘지에드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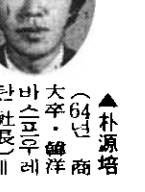
▲趙源衡(59년 師大卒·대청중학교 교감)=최근 청량고등학교에서 대청중학교 교감으로 승진.

▲姜慶植(61년 法大卒·本會理事·前재무장관)=1월 5일 한국산업은행 이사장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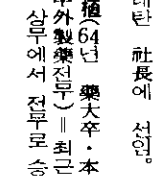
▲尹東潤(61년 法大卒·체신부기획관리실장)=지난 12월 29일 체신부 우정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



▲姜敏求(62년 行政大學院卒·本會理事·유성컨트리클럽 社長)=최근 香港에서 개최된 東洋및 東南亞라이온스 대회에서 89~91년 2년 임기의 국제이사로 추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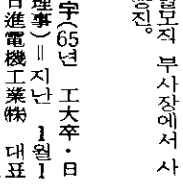
▲朴源培(64년 商大卒·韓洋化學과 西獨바스프社가 합작으로 설립한 韓洋바스프우레탄 社長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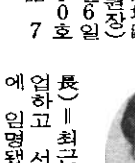
▲崔賢植(64년 藥大卒·本會理事·中外製藥무)=최근 中外製藥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

▲李大遠(65년 商大卒·本會理事·第一毛織사장)=1월 7일 제일모직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

▲金光宇(65년 工大卒·日進代表理事)=지난 1월 1일자로 日進電機工業㈜ 대표이사로 ㈜日進 대표이사에서 전보.



▲卞圭七(62년 法大卒·本會理事·력키금성상사 사장)=12월 27일 엘지에드 사장에서 력키금성상사 사장으로 전보.



委員會위원장)=1월 6일 汝矣島 대영빌딩에 사무실을 개설. 電話 783-5229.

▲李琪淵(77년 醫大卒·前한국보훈병원 신경정신과장)=최근 강남구 청담동 41번지에 『이기연신경정신과의원』을 개원. 545~1609

▲서울시綜合建設本部長)=최근 국방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시綜合建設本部長에 임명됐다.

▲金瑞鳳(54년 美大卒·美大同窓會長·同德女大교수)=1월 14일 열린 韓國美術協會 정

學術院 院長 徐燉珏 박사

同門을 찾아서

異狀暖多으로 때아니게 촉촉히 내리던 겨울비가 멎고 오랜만에 본래의 겨울모습을 되찾은 지난 27일 오후 「同門을 찾아서」子는 매섭게 몰아치는 瑞草區 中央圖書館옆의 알으마한 둔덕을 지나 盤浦洞山49번지에 자리한 大韓民國學術院으로 徐燉珏회장을 찾았다.

『학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科學者의 대표기관으로서, 學問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고 과학자의 지위향상을 통한 민족문화 創造發展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52년 8월 7일에 제정 공포된 文化保護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읍니다.

그 주요 기능으로는 政府의 학술진흥및 국민정신교육과 科學語文 文化 教育政策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참여 협력하고, 우수한 학술연구및 著作者와 현저한 공로자에게 學術院賞 시상, 과학자 또는 과학단체에 대하여 奬勵金, 補助金, 功勞金의 지급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읍니다.』

지난해 8월 22일 제22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학술원의 活性化를 위해 관계 法令의 개정등 지칠줄 모르는 老益壯을 과시하고 있는 徐동문은 학술원의 설치목적과 기능에 대해 강의하듯 이같이 설명한다.

商法學의 大家로 더 알려진 徐동문은 46년 京城大學 法文學部를 졸업하고 56년 美國 南메소디스트大學院을 거쳐 65년 慶熙大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교에는 49년 전임강사로 강단에 선이후 助教授 副教授 教授를 거치면서 그동안 學生處長, 司法大學院長, 法大學長의 보직을 맡아 탁월한 행정수완을 보였다.

法大學長을 끝으로 모교에서 물러난 徐동문은 72년에 東國大 총장, 79년에는 慶北大 총장회 중책을 맡아 우리나라의 대학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또한 편으로는 保險學會長, 公認會計士會長, 商事法學會長, 法學敎授會長, 海法會長, 法및 社會哲學 韓國學會長등을 역임하며 국가발전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榮光에도 불구하고 모교에서 停年을 맞이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 했다.

『학술원의 회원은 각국에서 대부분 終身制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養老院이라는 일부 비관적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시인한 徐동문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말 文化保護法을 폐지하고 學術院法을 새로 제정, 학술원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회원의 70세 정년제를 없애는 대신에 4년의 임기제로 하여 연임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회원의 선출도 문교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회원들이 총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도록 했으며, 정원도 1백명에서 1백50명으로 대폭 늘리어 능력있는 신진들에게 참여의 폭을 넓혀 주었다.

"국가발전 위한 견인차 역할을"

本會 初代사무처장지낸 城大출신

『학술원의 앞날을 지켜봐 달라』는 徐동문의 의욕에 넘치는 표정에서 학술원으로서는 올해가 도약의 한해가 될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徐동문은 또한 동창회와도 끊을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다. 68년 崔文煥총장 당시 학생처장이었던 그는 朴斗乘상대동창회장, 李錫範법대동창회장을 찾아가 총동창회 결성의 필요성을 역설,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 이듬해 2월 1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초대 사무처장에 선출되어 오늘의 동창회를 있게한 장본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회에 대해서 남다른 愛情과 關心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제우리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한국제일의 동창회로서 동문간의 親睦과 團結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바란다』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揭示板

結婚

同窓會館 冠岳홀

▲吳寅泳(55년 師大卒·本會事務處長)=女息 受炫양=2월 18일 오후 2시.

▲황대현(86년 師大卒)군·김미영양=2월 11일 오후 2시.

▲김종태(83년 法大卒)군·최정수양=2월 12일 오후 1시.

▲김 준(84년 社會學科卒·母校 社會學科조교)군·이선희(83년 國史學科卒)양=2월 12일 오후 2시 30분.

▲전규배(85년 經營學科卒)군·김미숙(醫科大 재학중)양=2월 12일 오후 4시.

▲이백규(87년 社會大卒·한국일보)군·강영수양=2월 18일 오후 1시.

▲최연상(86년 工大卒·금성사 중앙연구소)군·이태임양=2월 18일 오후 3시 30분.

▲이병태(85년 貿易學科卒)군·한혜경양=2월 19일 오후 1시.

▲이운석(88년 社會大卒)군·한정혜양=2월 25일 오후 1시 30분.

▲홍성욱(83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군·강명현양=2월 25일 오후 3시.

▲양원주(83년 獸醫大卒)군·이나미양=2월 26일 오후 12시 30분.

▲이 현(88년 師大卒·공항중학교)군·최은정양=2월 26일 오후 2시.

▲조진만(保建大學院 재학중)군·이미옥양=2월 26일 오후 3시 30분.

飲酒論 〈下〉

健康교실 ㉒

洪 文 和
〈37년 藥大卒〉
母校명예교수

Ⅰ

사람이 처신하는데 있어서 자칫하면 몸을 망치기 쉬운 것이 네가지가 있다. 「酒·色·財·權」의 네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이 모두 즐기면서도 몸을 망치지 않는 것들인데, 즐기면서도 방법은 없을 것인가? 四象醫學을 창시한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이라는 책을 보면 그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若敬淑女, 色得中道. 若愛良朋, 酒得明道. 若尙賢人, 權得正術. 若保窮民, 貨得金功』(만일 淑女를 존경한다면 女色도 正道에 알맞을 것이요, 만일 良朋을 敬愛한다면 飲酒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賢人을 尙한다면 권세도 術數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요, 만일 窮民을 보호해 준다면 財貨도 그 공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가 힘든 것이 문제인 것이다. 가령 여자문제만 하더라도 여색에 빠지면 빠졌지 어떻게 존경하면서 사랑할 수 있나, 술도 악당끼리 모여서 질탕하게 마셔야 술맛이 나지, 올바른 친구들과는 어디 따분해서 술맛이 날 수가 있겠는가.

지난번에 술이 지나치면 알콜症, 즉 알콜중독자가 되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게 되니, 술을 마시되 중독이 되지 않도록 마셔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험에 의하면 「혼자서 마신다」 「아침부터 마신다」 「술 마시는 것을 가족들이 싫어한다」 「숙취때문에 이튿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술마실 때에 무슨 것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점점 주량이 늘어간다」 「술을 마시면 주정을 부린다」 「의사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하는데도 마신다」 「술을 마시지 않고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등의 증상이 틀림없는 알콜症이라고 하여도 괜찮다. 술을 즐기면서도 서 술맛이 날 수가 있겠는가.

Ⅱ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실수 있을까.

알콜症이 되게 하는데는 술을 과음하는 풍습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또는 문화적 배경이 문제가 된다. 오히려 술망나니를 괴짜 奇人처럼 숭상하는 풍마저 있으니 말이다.

자라날 때에 가정에서 술에 대한 올바른 예의범절을 배우는 것도 필요한데 요새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어렸을때부터 집 어른들이 곤드레가 되어 돌아오는 풍경만을 보게 되는 것도 탈이다. 『옛 젊은이들은 술을 어른들앞에서 공공연하게 배우고, 취하는 것은 은밀하게 취하였는데, 요새는 술을 몰래 배우고 주정은 공공연하게 부린다』라고 말한 분이 있는데 사실이 그렇다.

또 하나 문제는 술을 즐기는 남편에 한 아내의 태도가 알콜중독을 만든다는 것이다. 嚴妻侍下에서 꼼짝 못하는 남편들이 술에 빠지기 쉽다. 남편을 감정적으로 압도하여, 술이라도 마셔야 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언제나 남편의 주정을 受難者型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아내의 태도도 남편을 술꾼으로 만든다.

술은 되도록이면 마시는 것이 가장 건전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럴 수만 없이고 보면, 술을 마시는 것이 생활이 되지 않는데는 방법은 없을까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술은 되도록 천천히 마셔야 한다. 체내에서 알콜이 분해되어 배설되는 속도에 맞추어 마시면 꽤 많이 마셔도 이겨낼 수 있다. 친구끼리 주고 받고하는 폭주가 가장 나쁘다.

②알콜도수가 높은 술은 절대로 스트레이트로 마셔서는 안된다. 희석하여 칵테일로 만들어 마셔야 한다. 서양사람들에게 알콜중독자가 많은 것은 위스키 때문이다.

③술은 매일 마셔서는 안된다. 반드시 休肝日을 두어야 한다. 술을 마시면 알콜이 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간에 영중이 생겨 脂肪肝이 된다. 그것이 회복될때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고 간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저녁 마시면 3일간의 휴간일을 두어야 한다. 단, 집안에서 저녁 식사때의 반주정도는 매일 계속하여도 무방하다.

④영양분있는 안주와 같이 술을 마셔야 하며, 술을 마셔도 식사는 하여야 한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술만 마시는 「깡술」이 간경화증의 최대원인이다.

⑤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술을 마시면 틀림없이 알콜依存性이 생긴다.

⑥요새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데, 알콜의 血中濃度는 따지지 말고, 한방울이라도 입에 대었다 하면 결단코 핸들을 잡지 말것.

趣味生活

室內花盆

上

金 基 善
〈母校農大교수〉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성장과 주택단지의 건설등은 우리들의 생활아파트와 대단위에 많은 영향을 주어 왔다. 그중의 하나가 각 가정마다 즐비하게 장식되어 있는 화분들의 이용이다. 특히 가정에서 집안을 꾸미고 가꾸는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취미소재도 되겠지만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植物들의 아름다움이 자기들의 알뜰함과 자상함을 대변시키기라도 하듯이 서로 다투어서 여러가지 다양한 草花類나 觀葉植物, 蘭類등등의 植物들을 키우고들 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추세에 맞추어 대도시내의 室內나 室外에서 가꾸고 있는 植物들에 대해서 代理管理 주거나 자문을 해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業體들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하여 손쉽게 꽃이나 관엽식물들을 키울수 있게끔 되었다. 사실 어느 집을 가더라도 네 다섯개 이상의 화분이 놓여져 있는것이 보통이고 대부분의 많은 주인들이 여러가지 경험에 의해서 상당한 수준의 재배기술들을 지니고 있기도하다. 그런 이들이 가꾸는 집안의 화분들을 대

할 것같으면 누구나의 마음속에서도 나도 이런 가정을 꾸며 보았으면 하는 바램이 서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저 무턱대고 소매 꽃화원이나 서초동, 남대문 같은 곳에서 멋있는 화분 몇 그루를 사다가 방에 배치한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다른 장식들과의 큰 차이인데, 즉 식물들은 늘 살아서 생동하고 있고 이것이 멋이요 長點이다. 따라서 부수되는 管理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花草를 가꾸는 主原因이 아름다움의 창출에 있듯이, 죽어 버렸거나 추한 모습을 띤 화분은 아예 없는 것이 제이다. 일반 소매상가라고 할 수 있는 집 앞의 화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값이 비싸고 선택의 여지가 한 작물내에서 본다면 매우 적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의 경우 서초동이나 남대문등의 꽃시장으로 가서 구입하게 된다. 이곳의 경우는 소매상의 경우보다 값이 저렴하고 생산농가에서 직송된 신선한 상태들을 유지하고 있어서 집까지의 운송문제만 해결된다면 더나 늘듯 싶다. 또한 자기의 車가 있는 경우에는 산책삼아서 서울근교의 의정부, 고양군, 구리시, 과천시등의 생산농가로 직접 가거나 공동구판장등에 가서저렴한 가격에 보다더 양질의 식물을 구입할 수도 있다.

하나 하나의 植物을 고를 때는 먼저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많이 나와 있어서 보기 싱싱한 잎들로 듬뿍 채워져 있는, 그리고 줄기가 튼튼한 그러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또한 잎이나 줄기 등을 잘 살펴보아 어떤 病徵이나 곤충의 害나 존재유무도 확인하여 건강한 植物을 골라야 한다.

다음은 구입한 후나 품의 變化정도를 신경써야 한다. 생산농가의 온실내에서 비교적 밝은 광선과 多濕한 환경속에서 자라다가 갑자기 하루만에 어둡고 건조한 일반가정의 거실등으로 옮겨지게 될 것같으면 대부분의 경우 생리작용에 이상이 생겨 쇼크를 받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현상중의 하나가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이다. 주위에서 보면 벤자민 고무나무의 잎이 구입후에 막 떨어지는 데 비교나 가타의 관리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갑자기 낯선 光度의 장소로 이전된 데에 대한 쇼크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구입장소부터가 비교적 낮은 光度나 비교적 건조한 편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미 잘자라고 있는 植物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구입후 가정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에 우선 집안에서 가장 밝고 습기찬 곳에 두었다가 서서히 한 두달후에 원하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광도와 습도를 서서히 낮게 해주는 것이다. 귀찮은 작업이기는 하나 植物의 구입가격과 차이 이루어질 만큼 각하면 그 희생의 가가 따르게 된다.

管理에 대해서 더기술하려면 많은 문제가 있고 또한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나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람도 그렇듯이 어떤 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 정기검진을 통하여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곧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듯이 화분위의 식물들도 자주, 적어도 2주일에 한번정도씩은 잎이나 가지, 꽃들등의 식물체 각부위를 면밀히 주의하여 관찰하는 것이다. 즉 어떤 점이라도 가루, 이상한 모양의 조직들을 발견하면 아는 지식으로, 아니면 가까운 화원등에 문의하여 조기에 손쉽게 방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전에 식물을 잘 키우는 비결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느냐에 있다고 기술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그 정감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필자도 아무리 園藝學을 전공으로 하고있다 하여도 美國 유학시절에 혼자 지낼 때는 제법 식물들을 몇개 그런대로 집에서 잘 키웠는데, 결혼하자 반정도가 못쓰게 되고 아이까지 낳게 되니 거의 화분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서 거의 다 죽여 버리게 되었던 과거가 있다.

환경변화에서 오는 植物의 적응력 注視

햇볕, 濕度따른 쇼크현상도 防止해야

올해에도 同門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年會費 내주신분

(理事 : 12월16일~12월30일까지
會員 : 11월17일~12월30일까지)

※ 人名밑의 괄호안 숫자는 각 동문들의 卒業年度임.

常任理事

▲齒科大學 金周煥 20만원
▲師範大學 朴智洙 20만원

理事

◇工科大學
▲高重明(51) 현대건설㈜부사장
▲奇承準(57) 한국시스템산업㈜대표
▲朴炳華(63) 대로빌딩회장
▲兪英根(57) ㈜영풍부사장
▲李承兆(64) 효성중공업㈜상무
▲趙庚穆(61) 국회의원

◇農科大學
▲姜寅穆(58) 서울농약㈜이사
▲姜銓愉(61) 나무종합병원장
▲金祥鎬(62) 대풍상사사장
▲吳世昇(57) 광명시부시장
▲張人錫(62) 풍진화학상무이사
▲鄭麟杞(56) 홍농종묘㈜부사장
▲崔贊植(62) 국토관리청장

◇文理科大學
▲金海都(63) 사회정화위5부장
▲朴鍾圭(61) 한국케미칼해운사장

◇法科大學
▲姜信玉(73) 국회의원
▲高大垠(62) ㈜미즈노사장
▲權炳壹(57) 도서출판지학사사장
▲金德永(65) 청주시장
▲金聖基(58) 전법무장관
▲金周仁(66) 씨즈통상㈜사장
▲李相連(59) 한국화약㈜부사장
▲李應漢(50) 변호사
▲韓正鎭(53) 변호사

◇師範大學
▲金洛升(49) 전청운중학교교장
▲金德姬(62) 목동중학교교감
▲金鍾先(53) 이대체육대교수
▲朴周海(55) 이리남성여고교장
▲安柱昇(54) 전남대사대교수
▲李金泳(51) 전북대자연대교수
▲李熹善(55) 용인태성고교장
▲李鎭淳(61) 전주상산고교장
▲林弘造(64) 영채교육사대표
▲任弘宣(57) 제주교대교수
▲崔洛春(63) 한림출판사사장

◇商科大學
▲姜東奭(65) 국민은행종로5가지점장

◇齒科大學
▲金聲起(52) 변호사
▲宋三錫(52) ㈜모나미대표이사
▲全昌基(62) 유유산업㈜부사장

◇獸醫科大學
▲全璨洙(50) 농림수산부가축위생과
▲崔永一(56) 기독교방송상무

◇藥學大學
▲金永銓(53) ㈜두방사장

◇音樂大學
▲金達聲(51) 단국대예술대학장
▲金永春(50) 청소년전도협회이사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해서 지난해엔 同窓會가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를 이루었읍니다.

올해에도 깊은 관심과 편달있으시길 바랍니다. 年會費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同窓會가 벌이는 事業에 일조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倍前의 성원을 바랍니다.

—會費내역—

- 一般會費 …… 1만원
- 理事會費 …… 5만원
- 常任理事 …… 10만원
  (회원 3천명 이상) …… 20만원
- 監事 …… 30만원
- 副會長 …… 50만원
- 會長 …… 100만원

会員

◇人文大學
▲李在淑(63) 서울음대교수

◇醫科大學
▲權寧助(62) 권소아과의원장
▲嚴翼富(64) 엄산부인과의원

◇齒科大學
▲金正均(65) 김정균치과의원장
▲李春根 이춘근치과의원장

◇社會大學
▲배선영(82)
▲이영훈(76)
▲이재율(76)
▲장지상(78)
▲정홍상(80)
▲차형훈
▲원경연
▲이재봉(82)
▲이재세(82)
▲정경채(81)
▲조현욱
▲이성만

◇自然大學
▲강홍식(81)
▲박동완(77)
▲신홍철(62)
▲윤봉룡(83)
▲이정석(76)
▲이주한(60)
▲이 온
▲김 선(85)
▲구자강(72)
▲신양현(83)
▲십대섭
▲이재민(77)
▲이정형(87)
▲장태식(80)
▲최명온(67)

◇家政大學
▲노재희
▲신상옥(63)
▲박미정(81)
▲유병옥(57)

◇經營大學
▲이보숙(80)
▲정수혜
▲이신영(86)
▲한인수

◇工科大學
▲김석진
▲마영남
▲유동운(71)
▲이 평
▲정재환(86)
▲김용신(83)
▲안성만(84)
▲윤병은(76)
▲고영욱(87)
▲김동진(72)
▲김석민(72)
▲김영숙(63)
▲김장남(66)
▲김재홍(63)
▲류홍근(55)
▲박 현(83)
▲박용갑(56)
▲박정현(83)
▲박헌렬(71)
▲박훈신(70)
▲김덕태(77)
▲김병기(56)
▲김세기(70)
▲김익영
▲김재봉(73)
▲김중홍(55)
▲박 필(84)
▲박금철(51)
▲박재홍(87)
▲박함태(72)
▲박현철(74)
▲서석균
▲서수현(73)
▲성관제
▲신세희(71)
▲안영융
▲염성배(74)
▲윤석환(73)
▲이경수(79)
▲이두용(85)
▲이선계(69)
▲김효경(48)
▲임창훈(86)
▲백동열(80)
▲윤영식(73)
▲이규한(52)
▲정창우(73)
▲이호대(81)
▲장 덕(78)
▲장문현(63)
▲장진선(66)
▲정갑진
▲정한모(75)
▲조광연(74)
▲조동우
▲조인갑(81)
▲조경열
▲최시정(59)
▲최태호(77)
▲최효병
▲태용호(85)
▲한재승(65)
▲서태왕(84)
▲송운덕(78)
▲신재균(78)
▲임재성(77)
▲유인봉(60)
▲윤재은(86)
▲이경식(78)
▲이문규(79)
▲이윤호(81)
▲이해경(53)
▲김공주(56)
▲옥유곤(82)
▲이광호(70)
▲이호경(80)
▲이해수(84)
▲임완택(56)
▲장두희
▲장춘호(74)
▲장희석(80)
▲정교영(86)
▲정형수(63)
▲조대연
▲조범규(77)
▲조종철(75)
▲최민호(64)
▲최정근(69)
▲최헌오(78)
▲최희정(65)
▲황성현(65)
▲편윤범

◇農科大學
▲곽광진(80)
▲김동식(77)
▲김용화
▲김종호(84)
▲문화자
▲박재현
▲송기면(80)
▲안윤수(80)
▲어변용(57)
▲이길순(77)
▲이을용(57)
▲이상춘(58)
▲이중길(72)
▲이진필(56)
▲이홍림(70)
▲이재완(75)
▲이영문(56)
▲이문식(68)
▲유재영(64)
▲안정환(86)
▲신동수(61)
▲봉명근
▲박기승(40)
▲김창회(75)
▲김원진
▲김선우
▲김광식(81)
▲이중훈(54)
▲정항연(85)
▲조원경
▲한기우
▲박용배(62)
▲김종성(63)
▲정현규(73)
▲장상철(57)
▲최경숙
▲김복진(64)
▲손해용(65)
▲권영한(63)
▲김대수(71)
▲김세호(81)
▲김영진
▲김필호(75)
▲노신일(66)
▲박종대
▲박호준
▲변세근(69)
▲안기문(55)
▲안승일(72)
▲엄기홍(65)
▲위풍길(64)
▲이 준(74)
▲김기태
▲김덕곤
▲김양일
▲김종옥(56)
▲김해근(74)
▲박세원(66)
▲박주기(64)
▲박화진
▲신용태(85)
▲안기헌(61)
▲안태백
▲여갑기(52)
▲유익형
▲이갑윤

◇文理科大學
▲김대연(69)
▲김동수(71)
▲김명근(61)
▲김병섭(72)
▲김상일(71)
▲김세원(64)
▲김시양
▲김예기(58)
▲김용섭(54)
▲김홍운(58)
▲류균상(76)
▲문병학(64)
▲박재룡(60)
▲배성완
▲손동수(71)
▲안세환(75)
▲오석운(66)
▲우인섭(51)
▲윤동현(61)
▲이 승(61)
▲이기충
▲이달호(50)
▲이석일
▲이정세(70)
▲이종진(70)
▲이종호(63)
▲이효봉(72)
▲장유조(75)
▲전형대(65)
▲정병희(56)
▲정소성
▲정용재(50)
▲조갑옥(63)
▲최종락(48)
▲한석태
▲박동수(57)
▲이규진(75)
▲이춘송(63)
▲표재명(58)
▲이근하(76)
▲이재근(71)
▲이장희
▲이종혁(56)
▲이학래(56)
▲장영선
▲전두하(52)
▲정 탄(70)
▲정복근(64)
▲정영부(68)
▲정하영
▲주석순(52)
▲하영화
▲홍성길(64)
▲송석훈(56)
▲이민수(65)
▲정무진(56)
▲고병복(60)
▲권석봉
▲박정숙(75)
▲예윤숙(74)
▲이영찬(58)
▲권미경(86)
▲김미경(81)
▲양행기(69)
▲이선중(85)
▲조재구(64)

◇美術大學

◇法科大學
▲권일웅(69)
▲김가수(56)
▲김근조(66)
▲김진현(78)
▲박종철(61)
▲변길호(75)
▲엄기염
▲오헌진(63)
▲유도선(57)
▲유택종(54)
▲이관홍
▲이남진(64)
▲이민섭
▲이석희
▲이재관(75)
▲이철송(71)
▲조대현(73)
▲지성우(70)
▲표주영
▲황동준
▲경재영(56)
▲김용섭(63)
▲노철호
▲백형일
▲안강민
▲엄낙용
▲우정권(66)
▲유석원(57)
▲이 돈(65)
▲이기영
▲이맹기(70)
▲이상용(57)
▲이용희(63)
▲이종민(65)
▲정덕홍(72)
▲조왕제
▲최선호(53)
▲홍윤식(57)
▲이재현(74)
▲강달훈(58)
▲고영신
▲김양자
▲김옥순(61)
▲김일수(71)
▲나청운(64)
▲류재만
▲박동순(58)
▲박찬옥
▲손문호(73)
▲신기남(74)
▲양승억(58)
▲옥선희(79)
▲유영주
▲윤병렬
▲이경해(71)
▲이능헌(75)
▲강성주(75)
▲고두헌(76)
▲김시양
▲김예기(58)
▲김용섭(54)
▲김홍운(58)
▲류균상(76)
▲문병학(64)
▲박재룡(60)
▲배성완
▲손동수(71)
▲안세환(75)
▲오석운(66)
▲우인섭(51)
▲윤동현(61)
▲이 승(61)
▲이기충
▲이달호(50)

◇師範大學

◇商科大學

▲이대영(51) ▲이석형 ▲이오봉 ▲이정인(48) ▲이지홍 ▲이현석 ▲이휘웅 ▲임영학(77) ▲전시진 ▲정순호 ▲조경제(40) ▲조재영 ▲차기금 ▲최돈성(58) ▲한재용 ▲홍재익 ▲황정옥(67) ▲황문용(70) ▲최선집 ▲하상규(77)
▲이상윤(57) ▲이수옥(66) ▲이용우 ▲이제권 ▲이철희(59) ▲이호직(39) ▲임병권(66) ▲임인철 ▲정문환(60) ▲정해주(86) ▲조기억 ▲진위교(58) ▲채영자(65) ▲한석수 ▲홍문식(60) ▲황만익(63) ▲이혜성(62) ▲서정선(64) ▲최홍민(53) ▲허재환(81)
▲김원태(60) ▲박가경(58) ▲박명식(63) ▲박창규(61) ▲박청부 ▲설동욱 ▲신문수 ▲오상봉(74) ▲윤명상(71) ▲이동휘(74) ▲이진영 ▲임종홍(63) ▲조동구 ▲진창갑(59) ▲최대환(66) ▲황광한
▲민주봉 ▲박건영(68) ▲박승길(70) ▲박창길(71) ▲배충묵(56) ▲성백규(56) ▲신용태(63) ▲유성재(62) ▲이 식(73) ▲이병선 ▲이철근(65) ▲정동수(70) ▲조현문(64) ▲진헌진 ▲홍성철 ▲박춘택(74)

◇獸醫科大學

▲고주영(69) ▲유화중 ▲이종덕(62) ▲정호채 ▲최귀철(81)
▲김봉환 ▲이성엽(85) ▲이종선 ▲조경종 ▲한기영

◇藥學大學

▲곽정수 ▲김기주(53) ▲김상수(70) ▲김영녀(57) ▲김용정 ▲김창수(78) ▲문영자(60) ▲신건영(41) ▲심상혁(49) ▲이병현(76) ▲이성애 ▲이완우(61) ▲김근환(68) ▲주상섭(69) ▲문창기(58) ▲박명호(57) ▲서석수(53)
▲권용수(64) ▲김만극(50) ▲김서진 ▲김영희 ▲김재영 ▲나현찬(56) ▲박중남(71) ▲신현화(61) ▲안순보 ▲유원근(58) ▲이서윤 ▲이성훈(61) ▲이정자(64) ▲김경영(68) ▲김기철(59) ▲김정옥(56) ▲박 열(61) ▲백성기(63) ▲서순화(68)

◇音樂大學

▲강덕원(73) ▲김정웅 ▲김난희(73) ▲고숙종(55) ▲김소함(77) ▲박숙련(85) ▲방효선(74) ▲신정숙(68) ▲양연섭(75) ▲이기원(55) ▲이한돈(73) ▲이혜선(74) ▲임헌원(68) ▲장성덕 ▲정구옥 ▲조 일 ▲최문진(77) ▲최찬균
▲김원식(56) ▲김현정(87) ▲박정임(73) ▲백남옥(69) ▲손정추(85) ▲유은숙(77) ▲이단열(67) ▲이종선(54) ▲조문자(66) ▲차정현(71) ▲한성범(63) ▲황성자(71) ▲김명자(69) ▲박점자 ▲이명희
▲송정현(69) ▲이강추 ▲이윤재(63) ▲이재욱(49) ▲이화우(58) ▲지정임(57) ▲한용필(41) ▲김상문(56) ▲김종철 ▲김혜자(55) ▲심은숙(55) ▲최종원 ▲전명식(49) ▲정남조(55) ▲현덕성(70) ▲전하창 ▲장관섭 ▲정대규 ▲정정희 ▲조규형(49) ▲조성욱 ▲황덕권 ▲강기세 ▲김사웅 ▲양승욱(57) ▲이계주(76) ▲이정원(85) ▲임충량 ▲장관섭 ▲홍총욱 ▲임경욱(60)
▲유창길(63) ▲이길재(72) ▲이재섭(60) ▲이천우(64) ▲장익화(59) ▲한기주(60) ▲김근영(39) ▲김헌태(67) ▲김영호 ▲김종철 ▲반성호(65) ▲이병선 ▲이종홍(60) ▲전복열(58) ▲조기창(68) ▲황 완(58) ▲전정숙 ▲정근배(65) ▲정문상(70) ▲정철영 ▲조래염(50) ▲주정순(59) ▲전하창 ▲정대규 ▲정정희 ▲조규형(49) ▲조성욱 ▲황덕권 ▲강기세 ▲김사웅 ▲양승욱(57) ▲이계주(76) ▲이정원(85) ▲임충량 ▲장관섭 ▲홍총욱(60)
▲김광욱(73) ▲김장우(54) ▲김병국(63) ▲성기정(86) ▲우소동(65) ▲이만환(66) ▲임채원(71) ▲장정훈(69) ▲천길순(56) ▲박인서
▲강형모 ▲권상욱(80) ▲김성희(81) ▲김용진 ▲도완녀(77) ▲박종원(67) ▲신윤식(74) ▲신현덕 ▲유순희(75) ▲이성원(84) ▲이해식(69) ▲임만규(56) ▲장기웅(84) ▲장정숙 ▲정남희(85) ▲조길자 ▲최보금(69) ▲한명희(64)
▲김윤숙(60) ▲김희자(59) ▲박지수(60) ▲백혜숙(75) ▲송혜경(76) ▲이경숙(55) ▲이옥연(67) ▲장미영(85) ▲진규영(71) ▲최승용(78) ▲한은재(64) ▲권유진(85) ▲김양조(71) ▲손순복(73) ▲이성만

◇醫科大學

▲고경석 ▲고영회(57) ▲김광원(72) ▲김병찬 ▲김상태(62) ▲김원필(47) ▲김재명(53) ▲김진호(81) ▲김창호(61) ▲김철순(50) ▲김형묵 ▲길옥식(77) ▲나봉진(60) ▲김현집(72) ▲문태준 ▲민병훈(71) ▲김기홍(57) ▲박미경 ▲박숙희(73) ▲박용원(83) ▲신현우(71) ▲서상완(55) ▲안해출 ▲유현덕(83) ▲이광호 ▲이기연(77) ▲이병두(74) ▲이언복(58) ▲이호진(77) ▲임남재(63) ▲전예근(53) ▲정경태(50) ▲정우구(59) ▲조세현(79) ▲주홍재(61) ▲하재동(57) ▲한문섭(78) ▲한문희(78) ▲홍진표(49) ▲김우기(66) ▲김춘길(65) ▲김정진(47) ▲김응국(82) ▲김용주(59) ▲김순희(56) ▲김성수(73) ▲길국기(67) ▲권성택(84) ▲고응린 ▲강선제(48) ▲김은덕 ▲성호경(57)
▲이춘우(72) ▲정소정 ▲김용희(85) ▲허영한(81) ▲김용분 ▲신영자(67) ▲이종협(66) ▲조계현(81) ▲채정희(82) ▲최금퇴(85) ▲황희영(76) ▲조웅순(77)
▲고영채 ▲구제호(75) ▲김규태(47) ▲김복식 ▲김영수(50) ▲김인권(75) ▲김정희(86) ▲김찬은(61) ▲김철규 ▲김태진(51) ▲김홍규(71) ▲정연태(81) ▲김일홍 ▲김상준 ▲김현성(46) ▲노동영(81) ▲김희섭(80) ▲민병섭(60) ▲박경찬(80) ▲박노현(84) ▲박선옥(80) ▲박인원(83) ▲박일홍 ▲이동호(79) ▲이순용(63) ▲임경욱 ▲이필영 ▲전대한(55) ▲전재명(76) ▲정재혁(59) ▲정두용(79) ▲조태권(77) ▲최순원(80) ▲유광희 ▲이광진(68) ▲이규택(83) ▲안병헌(73) ▲서정수(75) ▲김재홍(73) ▲송희주(66) ▲신재홍(87) ▲신인영(73) ▲한태영(85) ▲최정훈(85) ▲한기준 ▲호원경(82) ▲김홍식(71) ▲김용주(59) ▲김용국(82) ▲김정수(50) ▲김창수(58) ▲김윤미(84) ▲김영준(52) ▲김성신(63) ▲김기 용(10) ▲김 윤(68) ▲고창국(75) ▲강순금(56) ▲김정용(59) ▲황철홍(81) ▲이학종(58) ▲정진우(49)

◇齒科大學

▲박상철(73) ▲박재형(72) ▲고민환(77) ▲김기진(53) ▲김이영(66) ▲김진수 ▲박주배(74) ▲배성한(77) ▲서병오(58) ▲서홍규(53) ▲송재관(84) ▲양재건(51) ▲우제홍(67) ▲이종원 ▲임 영(81) ▲전동수 ▲정문현(83) ▲최형석(56) ▲강진국(63) ▲구본옥 ▲김순두(51) ▲김상홍 ▲이용규(52) ▲이정권 ▲정연태(81) ▲진동규(84) ▲하계식 ▲김현우(70) ▲민성원 ▲박 관(80) ▲박춘우(81) ▲박향준(81) ▲장홍수 ▲이재현(57) ▲이홍균(63) ▲장희석(79) ▲전호성(82) ▲주양자 ▲하재학 ▲김광수(52) ▲김용규 ▲김정훈 ▲김보련(52) ▲김태영(85) ▲최인영(73) ▲박두환(57) ▲박의원(67) ▲안성모(74)
▲김정수(75) ▲김정웅 ▲김진수 ▲김황종 ▲박옥연 ▲서영수 ▲심재진 ▲이용오 ▲최정식 ▲김인수 ▲길종달 ▲노성윤 ▲김정순(75) ▲원윤남(57) ▲이윤정(86) ▲백월향 ▲이정숙 ▲권오겸 ▲문정진 ▲김채숙(66) ▲우경선(81) ▲박문희 ▲최명애 ▲이정옥(57) ▲조원자(54) ▲이영현(74) ▲김정수 ▲김용식 ▲김종수(52) ▲이강진(80) ▲이성재(57) ▲이세종(58) ▲이상익(85) ▲이동식(81) ▲이대일 ▲이건주(76) ▲유주한(57) ▲오덕자(68) ▲신재홍(87) ▲송희주(66) ▲성상현(79) ▲성노현(80) ▲배대경(70) ▲조한춘(57) ▲조중묵(60) ▲장홍수 ▲임장섭(58) ▲이준섭(58) ▲이승철 ▲오춘규 ▲박주병 ▲김일영(85) ▲김연만 ▲후건희 ▲박상균 ▲김정범 ▲김성수(58) ▲김기현(60) ▲강태욱(76) ▲임성삼 ▲최호영(62) ▲최용묵(43) ▲최구영(72) ▲조영환 ▲정용호(71) ▲이영달(60) ▲이상신 ▲이민영 ▲이건복(79) ▲송덕영(75) ▲백유선(75) ▲박찬유(71) ▲박종삼(60) ▲박상진(69) ▲김희경(48) ▲김성묵(45)
▲김익현(85) ▲박상윤(78) ▲박순여(72) ▲박종석(56) ▲김준호(67) ▲박은호(67) ▲박상수 ▲김연영(65) ▲김 남일 ▲김 교환 ▲고석찬 ▲김규문 ▲김복기 ▲김준호 ▲박은호(67) ▲박채용 ▲손태원(77) ▲유광호(72) ▲윤희섭 ▲이재구 ▲이종호 ▲장병기 ▲전용기 ▲정인상 ▲조태송(87) ▲최완석(85) ▲김선일 ▲김우식(68) ▲분부홍(82) ▲성진근(68) ▲이종석(69) ▲정진영 ▲진선주 ▲한정현 ▲김용근 ▲조도현 ▲김한도 ▲고재홍 ▲김민납 ▲박찬륜 ▲신진규 ▲이명희(74) ▲이정도(69) ▲정기환(75) ▲최홍규 ▲고숙국 ▲김 남 ▲김 교 ▲김 ▲김 ▲김

新刊 안내

※이 欄은 同門들께서 펴낸 新刊서적을 紹介해드리기 위해 마련했읍니다. 새로 저술한 著書를 本報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읍니다.

□ 現代資本主義(上·下)

—朴鳳煥著

58년 文理大 정치과 卒. 證券監督院원장으로 재직중인 朴동문이 오랜 公職생활에서 얻은 경륜으로 富의 축적과 平等化욕구에의 代案을 제시하고 있는 著書.

이 著書는 경제뿐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 등 제분야를 종합적접근방법으로 국가 사회의 흥망성쇠를 因果論的으로 분석한 勞作으로 副題를 「그 苦惱와 活路」라 달고 있다.

上卷에선 현대자본주의 전반에 걸친 總論을, 下卷에서는 한국경제에 관한 各論的인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上·下卷을 관통하는 저자의 문제의식은 현대자본주의가 직면한 고통스러운 딜레머, 즉 한편으로는 거래기업의 끝없는 富의 축적으로인한 불평등의 深化, 다른 한편으로 대중사회의 성숙에 따른 平等化에의 욕구분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著者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국내외의 많은 文獻을 섭렵하고 그것을 재구성함과 동시에 각항목마다 저자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한 代案을 제시하고 있다. (博英社刊 上卷1만원·下卷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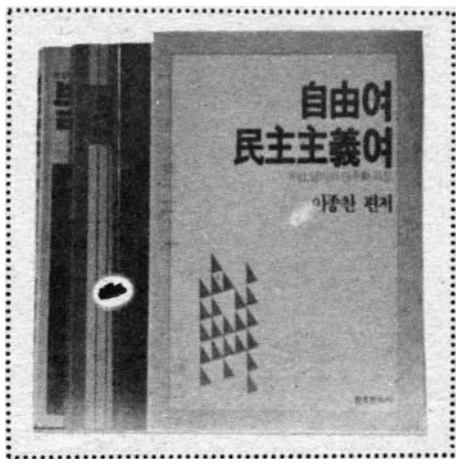
□ 國際金融論

—李康男著

65년 農大農經科卒. 한국은행에 재직중인 李동문이 국제금융과 국제재무관리의 理論과 技法, 국제금융市場構造를 다룬 국제금융의 解說書.

우리의 금융산업이 세계적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혁신의 흐름에 對應, 효율적으로 전환기를 맞아야 될 시점에서 국제收支의 黑子와 對外去來의 급속한 확대를 배경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금융국제화와 자본자유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때에 출간되어 기대되고 있다.

이 著書엔 국제금융자산의 조달과 포트폴리오 관리에 역점을두고 새로운 금융기법인 통화금리先物, 옵션先物 금리계약, 스와프및 合成거래기법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換리스크와 금리리스크의 효율적 관리기법에 대해서도 事例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모두 6편으로 짜여져 있는 이 책은 1~3편에서 국제금융·외환상의 기본결정이론과 현대적 환율결정이론이 설명돼있고 제4편에선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이론과 換·金利리스크의 관리방법을 다루고 있다. 제5편에선 유러시장과 國際債시장의 구조 및 기능, 각종 금융수단의 특징과 거래기법을 다루고 6편에선 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 및 국제수지 조정메카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法文社刊 값1만2천원)



□ 放送法制論

—朴容相著

67년 法大卒. 현역법조인으로 放送委審議위원으로 종사하바 있는 著者가 放送法에 대한 基礎理論을 다룬 著書이다.

著者는 단지 방송법을 해석하는데 머물지 않고 改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立法論과 바람직한 방송정책의방향등 방송법이론 전반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중 제1편「비교방송법제론」에선 외국의 방송법제를 개관하고 있다. 자유세계 방송체제중에서 대표적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유럽의 公營放送制및 미국의 民營商業放送制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情報化시대를 맞아 방송을 포함한 정보·통신정책일반이 指向해야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2편「한국의 방송제도」에선 우리나라放送法制의 과거와 현재를 개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著者의 견해를 피력하고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헌법상 요구되는 방송법의 기본원리, 한국방송심의제도의 연혁 및 방송자문위원회의 位相, 논쟁이 거듭되고 있는방송정책과 방송법개정의 方案등이 주요내용을이루고 있다.

著者는 특히 여유채널이나 뉴미디어의 일부가 민간에 개방되어야하는 것은 시대적조류라고 지적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기구를 설립, 방송의 長期的 발전계획수립 및 방송법개정을 위해 장기적 체계적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문고刊 값1만2천원)

새벽의 문 한 컵

家庭閑談

12월 초, 어느 오전에 우연히 TV를 켰더니 건강에 관한 강의를 방영하고 있었다. 세브란스의대의 교수라고 화면아랫글자로 소개되어진 강사는 대부분이 가정주부인듯한청중을 앞에두고 능숙한 화술로 백해무익한 흡연의 중지를 강조했다. 그리고나서 그는 건강식품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먹고 싶을때 먹고 목마를때 마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특별히 좋고특별히 나쁜 음식은 없다. 체내에 들어오면각기 단백질 지방 함수탄소등등의 필요한 영양분으로 나뉘어 소화·흡수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새벽 물한컵을 포함하여 되도록 많은 물을 마시라고말하는데 그것은 아무의미가 없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라. 물 많이 마시면 소변만 많아지는것외에 무엇이 더있느냐?』 이 대목에서 나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수 없었다. 터뜨리지 오래전부터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 어느 在美의사의 TV강의 내용에 물 많이 마시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의 충고에 따라 물마시는가 정이 많이 생겼으며우리집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컵씩마시는 일을 시작했기때문이다. 매일 밤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나가는 남편의 건강을위하여 무엇인가 해드려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는 새벽녘 물한컵의 봉사가 그 나름대로 마음의 작은위로가 되고 있는터인데 물을 마셔봤자 소변만 많아질 뿐이라니 우습지아니한가? 허나 그 在美의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새벽 물한사발이 몸에 좋다는 얘기는 전해내려오고 있으며 내 경험에 의하면 별것아닌 아침 물한컵이 한결 가볍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고있다.

그런데 연달아 나오는 강사의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물을 마시면 무엇을 씻어내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하이타이를 풀어서 마시는것이 더 좋을것 아닌가? 다분히 농담조로 한 말이기는 하나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이다.

TV강의를 듣고 있는 엄마곁에서 놀던철없는 아이가 참 이상하고도 재미있어 기억에 남겨두었다가 어느 심심한 때에 하이타이를 물에 타서 마셔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위하여 일방적이고도 과장된 표현을 서슴치않고 사용하는 이 사회의 풍조를 어떻게 해야할런지 안방에 앉아있는 나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신승애 女史

韓相宇(62년 音大卒)
人夫문동

□ 自由여 民主主義여

—李鍾贊編著

72년 行政大學院卒 정부장관을 역임, 현재 민정당 사무총장으로 民主化추진에 全力을 다하고 있는 를름이 유력, 南美의 民主化과정을 編著로 꾸며냈다.

민주화를 지향하는역사발전 방식이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 視覺에서 작용과 반작용 이후에는 반드시 발전된 형태의 民主制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며 민주화에이르는 과정은 아무리서둘러도 급속하게 성취되지 않으며 혁명적인 것은 민주화의 反槪念임을 체험적으로 알수 있다고 筆者는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는 일정한 경제적 토대와 사회적 성숙에걸맞는 발전속도에 따르게 된다고 역설하면서 더욱 중요한 점은 민주화를 이루는 주체가 결코 극단주의·파격주의·급진주의라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이다.

이 著書에서 민주화는 결국 온건 개혁주의 노선임을 강조하면서 위와같은 전제밑에서 여러가지 사실을극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구체제의 유산정리문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후속 민주제가 어떠한 정부형태를 갖추었으며 前政權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민주화과정에 기여하는 제반 요소들을 비교검토할수 있도록 編著되어 있어 오늘의 우리 현실을파악하고 전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호문화사刊 값 3천5백원)

同門作家 短篇選

종이새의 비행 上

李 清 俊

▲39년 全南 長興生 ●64년 文理大卒 ●65년 思想界에 「退院」으로 文壇데뷔 ●主要作品으로 「별을 보여드립니다」 「소문의 壁」 「假面의 꿈」 「당신들의 天國」 「豫言者」 「낮은대로 임하소서」 「살아있는 늪」 「잔인한도시」 「제3의 현장」 「병신과 머저리」外 多數

저 앞 종이비행기는 지난 여름 내가 이 잠실동 18층 아파트의 일층으로 집을 옮겨온 바로 이튿날 아침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다. 집을 새로 옮기고난 홍분과 새동네에 대한 신선한 호기심으로 아침 일찍 잠이 깨어 거실로 나가보니, 아직도 어두컴컴한 창문밖 잔디밭에 희끗희끗 종이비행기들이 몇개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둘론 그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어느 높은 층 개구장이 녀석들이 발새 종이비행기놀이 시합이라도 벌였던 게지…. 그쯤 무심스레 넘기고 말았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창밖 잔디밭에는 비슷한 수의 종이버행기들이 여기저기 내려앉아 이슬에 젖고 있었다. 다음날뿐 아니라 그 다음날도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종이비행기는 계속 떨어져 내려 있었다.

나는 비로소 그 종이비행기들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청소부나 괴롭혀댈 휴지조각 정도로나 여겨지던 그 흰 종이접이들에서 하루하루 날이 갑에따라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의 조용한 숨결같은 것이 느껴져 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그 은밀스런 종이접이의 숨결뒤에는 내게 어떤 소리없는 호소의 손짓마저 어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들은 때로 하루나 이틀쯤 잔디밭 위에서 햇빛에 바래다가 어느사이 일시에 자취가 사라지기도 하였고, 때로는 청소부의 발도 더욱 더 가깝고 역력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제 그것들을 그저 철부지 어린애들의 무심스런 장난질로만 보아 넘길 수가 없었다. 버려진 비행물체들의 길이 늘어져 잔디밭에 휘씩 낭자해 있을 때도 있었다. 셋…다섯…아홉…아침마다 수를 더해가던 그것들이 어느땐 열몇개까지 늘어 있을 적도 있었다. 날이 더해 가고 종이접이의 숫자가 늘어가면 갈수록 그것의 숨결과 호소의 손짓이 어렴풋한 숨결과 조용한 손짓은 다름아니라 바로 그것을 밤마다 창밖으로 날려보낸 사람의 것인 때문이었다. 어떤 아이일까. 아니면 다소 감상기가 심한 처녀기의 여자? 이후부터 나는 그 새벽의 창문앞에 종이비행기의 주인공을 상상해보곤 하였다. 내게 먼저 떠오른 것은 그 꿈이 많은 내향성의 어린 사내아이나 소녀 취향을 아직 학시험준비라는 것으로 밤을 새우다가 잠시 창밖의 어둠을 향해서 지친 심신을 달래곤 하는 아이…

청소년기의 여자에 대한 상상은 그보다 좀 특별한 경험이 밑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언젠가 나는 한 인척을 병문하러 이름난 정신병원을 찾은 일이 있었고, 그때 내가 일을 마치 있을 때였다. 머리 위에서 내보내 달라구요. 팔랑팔랑 떨어진 종이를 집어 펴보니,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빈백지였었다. 이번에 내가 그 종이비행기에서 어떤 젊은 아가씨의 모습을 그려보게 된 것은 그때의 기억이 이상스레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고 오래 남아 있었던 때문이었다.

어느 쪽이나 별로 화창하고 유쾌한 그림들은 아니었다. 그것을 쉬운 대로 꿈이나 소망의 날려보냄이라고 한다면, 아쉽게도 그 간절한 꿈이나 호소는 날음이 소망처럼 길지를 못했다. 기껏해야 창문 아래 잔디밭으로 떨어져 어둠속에 버려지고 잊혀진 꿈이었다. 그리고 그꿈이나 소망의 숨결은 한낮의 햇빛속에 바래고 변색되어 구엔 한줌의 귀찮은 쓰레기로나 치워지게 마련이었다. 좋게 치워지게 말하여 꿈의 껍데기 혹은 그 잔해들이라고나 할까. 그 주인공이 앞서의 상상대로라면 더더욱 우울한 정경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왠지 그것들이 그렇게 보이질 않았다. 어딘지 서럽고 애틋해 보이면서도, 보다는 따스하고 정겨운 느낌이 앞서곤 하였다. 때로는 거기 아름답고 행복스런 감동기 같은걸 느낄 때마저 허다했다. 그런 따스하고 행복스런 감동속엔 밤 어두울을 향하여 창가에 마주선 젊은 부부의 실루엣도 지나갔고, 친구처럼 의가좋은 아비와 어린 아들, 먼 여행길을 떠나간 그 아비를 그리는 다감한 모자나 모녀들의 모습도 스쳐가곤 하였다. 하면서도 다만 한 가지 미심쩍은 느낌은 내 마음 깊은 곳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그 따스하고 정감스런 유희가, 혹은 그꿈과 소망과 삶이 행여 어떤 장애에라도 부딪칠라, 하는 따위의 우려에서만이 아니었다. 보다는 오히려 나의 상상의 허구성 혹은 진위 여부에 대한 회의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 종이비행기들이 과연 누군가의 아름답고 행복한 소망의 착륙물들일까. 내가 전혀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 그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의 삶과 그 삶에 대한 회의와 불안감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끈질기게 계속된 착륙물의 소리없는 호소와 손짓은 그 것들을 그저 아름다운 정경으로만 보아 넘길 수가 없게 됐다. 하다보니 자연 어떤 날은 낙하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반대로 어떤 날은 비둘기떼라도 내려앉은듯 잔디밭이 하얗게 뒤덮였거나, 그 단속과 숫자의 변화에도 나는 공연히 신경이 쓰이곤 하였다. 낙하물이 아예 하나도 안 보이거나 반대로 그 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있는 아침은 주인공의 어떤 마음의 흔들림 아니면 모종 절망적인 과탄의 기미를 보는 듯하여 자신마저 공연히 안절부절을 못해 한곤 하였다.

어렸을 때 청소년기의 여자 못벗어난 청소년의 삼상은 그런 경우에 누구나 머리에 그려보기 마련인 우울기가 약간 배식된 그림이었다. 몸이 몹시 허약하여 어른들의 과보호속에 사는 아이, 어쩌면 아예 심신 어느 한 쪽의 장애 때문에 문밖 출입이 불가능한 아이, 그래서 밤마다 그 자신이 날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종이비행기에 실어 날려보내는 아이, 아니면 무슨 진 누군가 다급한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들어 쳐다보니 5, 6층 높은 병실 창문에서 웬 여자 환자 한사람이 나를 손짓해 부르고 있었다. 스물 안팎의 젊은 아가씨였다. 그녀는 내가 자기의 부름을 알아들은 것을 보고는 흰종이쪽지 한장을 살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내리며 애원하듯 소리쳤다. —이편지좀 우리 집으로 전해줘요. 날 여기서 니었다. 그것을 쉬운 대로 꿈이나 소망의 날려보냄이라고 한다면, 아쉽게도 그 간절한 꿈이나 호소는 날음이 소망처럼 길지를 못했다. 기껏해야 창문 아래 잔디밭으로 떨어져 어둠속에 버려지고 잊혀진 꿈이었다. 그리고 그꿈이나 소망의 숨결은 한낮의 햇빛속에 바래고 변색되어 구엔 한줌의 귀찮은 쓰레기로나 치워지게 마련이었다. 좋게 치워지게 말하여 꿈의 껍데기 혹은 그 잔해들이라고나 할까. 그 주인공이 앞서의 상상대로라면 더더욱 우울한 정경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왠지 그것들이 그렇게 보이질 않았다. 어딘지 서럽고 애틋해 보이면서도, 보다는 따스하고 정겨운 느낌이 앞서곤 하였다. 때로는 거기 아름답고 행복스런 감동기 같은걸 느낄 때마저 허다했다. 그런 따스하고 행복스런 감동속엔 밤 어두울을 향하여 창가에 마주선 젊은 부부의 실루엣도 지나갔고, 친구처럼 의가좋은 아비와 어린 아들, 먼 여행길을 떠나간 그 아비를 그리는 다감한 모자나 모녀들의 모습도 스쳐가곤 하였다. 하면서도 다만 한 가지 미심쩍은 느낌은 내 마음 깊은 곳의 어떤 불안감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그 따스하고 정감스런 유희가, 혹은 그꿈과 소망과 삶이 행여 어떤 장애에라도 부딪칠라, 하는 따위의 우려에서만이 아니었다. 보다는 오히려 나의 상상의 허구성 혹은 진위 여부에 대한 회의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저 종이비행기들이 과연 누군가의 아름답고 행복한 소망의 착륙물들일까. 내가 전혀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 그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의 삶과 그 삶에 대한 회의와 불안감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끈질기게 계속된 착륙물의 소리없는 호소와 손짓은 그 것들을 그저 아름다운 정경으로만 보아 넘길 수가 없게 됐다. 하다보니 자연 어떤 날은 낙하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나 반대로 어떤 날은 비둘기떼라도 내려앉은듯 잔디밭이 하얗게 뒤덮였거나, 그 단속과 숫자의 변화에도 나는 공연히 신경이 쓰이곤 하였다. 낙하물이 아예 하나도 안 보이거나 반대로 그 수가 갑자기 엄청나게 늘어있는 아침은 주인공의 어떤 마음의 흔들림 아니면 모종 절망적인 과탄의 기미를 보는 듯하여 자신마저 공연히 안절부절을 못해 한곤 하였다.

〈계 속〉

母校소식

基礎科學공동기기센터 모교부설기관으로 設立

전국 각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에 필요한 기초 교 부설기관으로 최근설동기기의 선정과 관리등 립되었다. 이 센터는 OECF 5의 업무를 담당할 기초 차 차관으로 배정된 6과학전국공동기기센터가모 백만불로 전국대학 공동용기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이미 기종선정을 마단락짓고 있는 상태이다. 일앞으로 모교 각 학과소속 교수들 뿐만 아니라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이 센터에 설치되는 高價 정밀기기를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된다.

水原캠퍼스 移轉본격추진

비행기騷音·公害심각 建設推委구성 工大맞은편敷地검토

모교 3대 캠퍼스 중 하나인 수원캠퍼스의 이전문제를 다룰 농학캠퍼스건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2월12일 첫 회의를 갖고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이 각각 작성한 발전장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계획안 설명에서 농대 및 수의대 교수들은 수원캠퍼스의 열악한 환경과 이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초 「서울대학교 발전장기계획(1987~2001)」에서 계획했던 공대 맞은편 부지에 새 캠퍼스를 조성하여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농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이 위치한 수원캠퍼스는 비행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과 진동및 수질오염등 공해로 인한 환경악화로 이미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수원캠퍼스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전에 대비하여 각종 교육·연구시설의 신증축도 최대한억제됨에 따라 수원캠퍼스 내 시설들이 매우 낙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되었다. 이러한 제반 여건때문에 현재 수원캠퍼스 교직원은 물론도 수원캠퍼스의 연구·연구시설을 조속히 교육하내 의견을 수렴하고대진위원회는 시급한 농·수의대 이전문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서울대학교발전장기계획」상의 캠퍼스 이전계획(안)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대

1학기 登錄 이달 20~24일까지

89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 등록이 오는 20일(月)부터 24일(金)까지 실시된다. 장소는 전국 소재 농협혹은 조흥은행 본·지점및 간이예금 취급소이다. 장학생으로 납입고지서의 납입금이 0원인 학생도 반드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미등록제적의 불이익을 받지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복학·복귀·복적·재입학원은 89년2월13일(月)부터 15일(水)까지 소속대학(원)교무행정실에 제출하고 23일(木)경리과에서 납입고지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그리고 휴학원은 등록기간중 소속대학(원)교무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수업료·기성회비 각 5~7%씩引上

모교는 지난 4일 89학년도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신입생 재학생 구분없이 각각 5%와 7%씩 인상했다.

이에따라 신입생 등록금은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55만4천원, 자연계열은 과별로 59만5천원~68만1천5백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자연대에 속해있는 의·치의예과 등록금은 자연대의 다른학과에 비해 등록금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다.

文敎部특정事業에 奎章閣연구채택돼

모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장각 자료를 중심으로 한 한국 중세사회의 해체와 근대화과정연구(약칭=규장각 연구)」가 최근 문교부의 특정연구사업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도 문교부 예산에 1억원의 규장각연구비가 책정되었으며, 연구결과가 총실할 경우 계속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家政大학장에 李基春교수 經營大학장에 韓義泳교수

모교는 지난 1월23일 자로 임기만료된 李順媛 가정대학장의 후임으로 李基春교수(소비자아동학)를, 金正年경영대학장의 후임에는 韓義泳교수(경영학)를 각각 임명 발령했다.

이들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李基春가정대학장 △42년 서울生 △65년 모교 師大卒 △70년 모교 대학원졸 △83년 문학박사(모교) △71년 모교사대전임강사 △75년 同조교수 △80년 모교 가정대 부교수 △85년 同교수 △同학생담당및 교무담당학장보 역임 △78~79년 美國 아이오아주립대학 객원교수 △89년1월23일 모교 가정대 학장. ◇韓義泳경영대학장 △27년 함북生 △55년 모교 商大卒 △65년 서독 퀼른대학卒 △75년 경제학박사(모교) △67년~75년 모교 상대 조교수·부교수 △76년 모교 경영대 교수 △79년 同경영연구소장 △83년 한국경영학회장 △한국마케팅협회장 △한국상품학회장 △89년 1월23일 모교경영대학장.

退任교수 16명 名譽敎授로 추대

수기간은 2월1일부터 2월13일까지이다. 문의는 工科大學 최고산업전략과정 행정실(888-9466)

卒業·入学式 옥내행사로 올해부터 体育館에서 거행할듯

모교의 입학식과 졸업식을 앞으로 교내 체육관에서 옥내 행사로 거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모교 식전개선연구위원회는 지난 11월30일 교수회관에서 위원전원이참석한 가운데 1988학년도 졸업식및 198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개선안을 안전으로 회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관악캠퍼스 운동장에서 치뤄온 졸업식과 입학식을 교내 체육관에서 옥내 행사로 거행하는 방안을 집중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화내 여론을 수렴하고 옥내 행사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계속 검토하여 89년1월 말경 다시 회의를 소집, 최종 심의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는 또 졸업식의 식순과 내용중, 이제까지 학사·석사·박사의 순으로 진행된 학위수여순서를 박사·석사·학사의 순으로 변경하고, 시상을 생략하며, 식사·답사의 순서와 명칭을변경하여 졸업생 인사·졸업식사의 순으로 하는등의 현행 식전에 대한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방안들은 앞으로교수의견 등 학내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식전개선연구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학장회의에서최종 결정케 된다.

退任교수 16명 名譽敎授로 추대

작년8월31일자로 정년퇴임한 교수중 인문대불문학과의 오현후 교수등 열여섯 분이 지난12월10일자로 모교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새로 명예교수로 추대된 분들과 그전공은 다음과 같다.

▲오현후(불문학)▲정병휴(경제학) ▲오만식(경제학) ▲정양은(심리학) ▲김훈수(생물학) ▲김효경(기계공학) ▲이승원(전기공학) ▲이정한(전자공학) ▲이응백(국문학) ▲이영기(경제학) ▲정연태(과학교육) ▲조윤성(약학) ▲홍창의(의학) ▲김제훈(약학)

金桂淑명예교수 85세 一期로別世

◇故金桂淑박사

모교 명예교수이며 學術院 원로회원인 金桂淑박사(29년 城大 철학과 卒)가 지난 1월12일 하오 5시 서울大 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85세. 故 金박사는 46년부터 70년까지 모교 圖書館長, 大學院 長등의 보직을 역임했으며, 모교 정년퇴임후에는 成均館大 대학원 강사, 建國大 대우교수를 지낸 후 81년 學術院 원로회원에 추대되었다.